

한의약학(韓醫藥學)의 삼대원전(三大原典)에 대한 비교 분석

최명숙* · 임동술 · 이숙연

삼육대학교 대학원 약학과, 전통의약연구소

Comparative Analysis on The Great Three Books of Oriental Medicines

Myungsook Choi*, Dongsool Yim and Sookyoon Lee

Department of Pharmacy, Graduate school of Sahmyook University, Traditional Medicines Research Institute,
Seoul 139-742, Korea

Abstract – In the Oriental Medicine field the great three reference books are Hwanti-naekyung(黃帝內經, HJNK), Sihnonn-gbonchokyung(神農本草經, BCK) and Shanghanlun(SHR). HJNK has been a theory book regarded as a bible of the Oriental Medicine, BCK, a herbal book with 365 species of red letters noticed from Bonchokyungjipjoo(本草經集註) and SHR, very important clinical book with concrete prescriptions for the therapy of patients. Though these books were written by Chinese people ca. 2000 years ago, yet they are no doubt very important and effective ones in these days. Unfortunately they are handed down to all transmitted books for a long times because original ones were destroyed by fire and another troubles. In this study we have tried to extract three common terminological words and common theories from the prescription law by theoretical principles(理法方藥, clinical therapeutic mechanism) acquired through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se three books. They are qi(氣), cold or heat(寒熱) and yin & yang(陰陽), and their practical basic theories have been evidenced through exterior & interior of body(表裏) and deficiency or excessiveness(虛實) by the heat of Sun. Also we would have realized that Oriental Medicine should be analyzed through various scientific techniques and clinical experiences, and necessarily unified to yin & yang monism from qi theory of the Sun in all human's life cycle(生老病死).

Key words – Oriental Medicine, HJNK, BCK, SHR, Yin & Yang Monism by the Sun, Qi.

서 론

동양의약학(東洋醫藥學)의 삼대원전(三大原典)은 황제내경(黃帝內經), 상한론(傷寒論), 신농본초경(神農本草經)의 세 가지 원전교과서(原典教科書)를 말한다. 이들 세 가지 서적은 이론 치법 그리고 약물에 관한 지식을 각각 전하고 있다. 동양의약학을 연구하려면 누구나 이들 삼대원전으로부터 시작하여야 하는데 이들 삼대원전은 신농과 황제라는 신화적(神話的) 인물명과 상한(傷寒)이라는 서명(書名)을 붙이고 있지만 원저자의 저술년대 저술배경 등이 지금까지 규명되지 못한 서적이다. 일본의 동양의학연구가 오즈카(大塚敬節)는 “상한론이란 책은 사람의 손으로 저술했다고 믿을 수 없는 훌륭한 저술로서 도저히 그 배경을 알 수 없는 수수께끼에 쌓인 학문이다.”고 하였다.^{1,2)} 저자들은 이러한 “상한론

의 비밀”을 연구하던 중 동양의약학의 보편적인 생명과학 원리는 상한의 훈고(訓詁)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³⁾ 상한의 훈고는 비폭(非曝)이다. 비폭은“태양에너지가 없다면?”이란 가정법으로 생각할 수 있고 이것은 천연물화학의 명반응(light reaction)과 연결시킬 수 있으므로 동양의약학의 전반적인 미스테리를 풀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약사들 가운데는 상한의 두 가지 해석과 육경병명에 대한 각종해석으로 학과가 분리되어 왔음도 알게 되었다. 이에 저자들은 고대문화를 일으킨 역(易)의 신화(神話)와 학문의 기원을 비교 탐색하여 상한의 훈고인 비폭(非曝)과 연결하게 되었다. 비폭은 고조선족과 은족의 태양신화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또한 천연물화학의 광합성반응(光合成反應)과 일치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조선시대말엽의 최한기(崔漢壽 1803~1875)의 기학과 이규준의 기혈론에서 해석된 기운동(氣運動)과 육경병리설의 핵심인 한열론(寒熱論)은 곧 금세기의 핵물리학인 양자역학(量子力學)에서 빛(光子)다발에 의한 파동함수의 수리적 계산으로 일치될 수 있는 가능

*교신저자(E-mail): leesy45@syu.ac.kr
(Tel): 02-3399-1603

성을 발견하였다. 이로부터 삼대원전의 공통이론을 비교분석 종합하여 “동양의약학의 통합이론”을 정립하였고 신상한론(新傷寒論)이라 가칭하였다.⁵⁾ 이어서 곧 기(氣)에 근거한 태양론과 분자세포론과의 비교연구를 논거로 하여 “동서의약학의 통섭론”을 정리하였다. 이 과정에서 동양의약학의 통합이론으로 가칭했던 신상한론은 청대에 같은 이름의 서적이 발견되었기에 쉽고 직설적 표현인 태양론(太陽論)으로 개칭하였다. 태양론의 일곱 가지 핵심은 ① 기(氣) ② 상한(傷寒) ③ 한열(寒熱) ④ 표리(表裏) ⑤ 허실(虛實) ⑥ 음양 또는 육경 ⑦ 일원론적 역도철학을 말한다.¹⁰⁾ 이에 저자들이 연구한 전 과정을 정리하여 『동양의약학의 통합이론』과 『동서의약학의 통섭론』이라는 제목하에 차례로 단행본 논문으로 발간하였고.⁴⁻¹⁰⁾ 이제 그동안의 연구를 통한 종합적 안목으로 삼대원전의 비교분석에 대한 연구를 정리하고자 한다.

중국의학사(中國醫學史)는 이해하기 힘든 두 가지 모순점이 있다. 하나는 황제내경과 신농본초경이 중국 최초의 통일국가인 기원전 진(秦)과 전한(前漢) 시대인 기원전 2세기에 저술되고 상한론은 그보다 400년이나 지난 후한(後漢)의 장사 태수 장중경이 저술한 것이라고 소개하였다. 그러나 명 청대에 발생한 복고주의(復古主義) 학파들을 ‘상한학파’라하고 AD 1000년경에 통일한 송 이후의 후세(後世)학파들을 오히려 ‘내경계학파(內經係學派)’라고 시대적 모순을 초래한다. 두 번째는 중국의학사에서는 “理必黃帝內經, 法必傷寒論, 藥必本草學”이라는 교육지침을 말하지만 실제임상에서는 황제내경 상한론 본초학의 치법과 처방이론이 서로 달라서 상호 통섭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다.¹¹⁾ 이것은 중국인들이 서로 다른 지역의 치료법들을 모아서 삼대원전을 만들고 또 장구한 세월을 거치는 동안 다양한 가설(假說)과 유파(流波)를 발생시켜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배들의 이론과 실재를 따라 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난해한 점은 WHO에 수록된 동양각국의 전통의약학이 제각각 다른 것에서도 드러나는데 사실은 주류(主流)와 비주류(非主流)가 있을 뿐이지 그 사정은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¹²⁾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들 삼대원전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생노병사(生老病死)의 근거를 찾아내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는 곧 현대의약학의 생명과학원리가 진화설(evolutionary theory)과 유전학설(genome theory)인데 비하여 동양의약학은 어떠한 생명 과학의 원리가 숨어있기에 장구한 세월동안 끈질기게

인정받고 쓰여왔는가는 신비로운 일이라고 하였다. 저자들은 이 신비의 베일을 벗기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연구에 임하였다.

황제내경

황제내경(黃帝內經)은 소문(素問), 영추(靈樞), 운기대론(運氣大論)의 세권이고 이론, 침구경락, 운기 등에 관한 지식이 각각 수록되어 있다. 황제내경에 대한 기록은 반고(班固 AD 32~92년)의 『한서예문지(漢書藝文志)』에 최초로 소개된 황제내경 18권인데 이것은 소실되었다. 송대의 학자들이 신교정(新校正)한 황제내경은 수대(隨代)의 전원기(全元起)본을 근거로 하였으므로 송본과 주해서(註解書)만 그 진모를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한의대(韓醫大)의 고(故) 홍원식이 역해한 『황제내경소문역해』와 약대(藥大)의 김창민 외 7인이 편저한 『황제내경강의(黃帝內經講義)』 그리고 약사와 한의사 면허를 모두 취득한 김동영 한의학박사의 『황제내경소문연구전집 5권』을 참고로 하였다.¹³⁻¹⁵⁾

1. 황제내경의 연혁과 개괄

a. 저자와 저술시기

황제내경은 대체로 전국시대(戰國時代) 말부터 진한대(秦漢代)에 걸친 BC403에서 BC208년경에 걸쳐 완성된 것이라 추정한다. 황제내경의 저자인 『황제(黃帝)』는 성은 희(姬)이고 이름은 헌원씨(軒轅氏) 또는 유웅씨(有熊氏)라 하는 삼황오제(三皇五帝)의 전설적 인물인 소전(少典)의 아들이라 하였다. 『중국통사간편(中國通史簡篇)』은 “황제는 일직이 탁록(涿鹿)인 지금의 하북성 의화(宣化) 계명산(鷄鳴山)기슭을 중심으로 유목생활을 하던 씨족(氏族)으로 구려족(九黎族)과 염제족(炎帝族)을 격파하고 중원지구에 정착한 화족(華族)으로 중화민족의 시조인 한족(漢族)이다.”고 하였다.¹⁶⁾ 훈고학자(訓詁學者) 주대박(周大璞)은 반고(班固 AD32~92)의 한서예문지(漢書藝文志)에 기록된 의경류(醫經類) 『황제내경』 18권도 역시 위작(僞作)이라고 하였다.¹⁷⁾ 따라서 황제내경은 한의 훈고학에 나오는 경전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는 황제내경의 형식이 연문(衍文)인 것으로 보아서 어느 한시기 한사람의 저술이 아니고 문명개화로부터 시작하여 구전되던 것과 기원전 후 및 수대인 589년까지의 교류되었던 모든 민족과 국가들의 의학지식이 총망라된 서적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기원 전후하여 동양의 한(漢)과 서양의 로마(Rome)는 동·서 패권국으로서 세계사에 기여하였으므로 황제내경은 고대 동서 통합적 산물로 보아야 옳을 것이라 본다.¹⁸⁾

b. 원전(原典)과 전본(傳本)

『황제내경(黃帝內經)』은 동양인들에게는 필독경전에 속하는 보건양생(保健養生)에 관한 교양서적에 해당한다. 전원기의 『황제내경』은 『소문(素問)』과 『영추(靈樞)』 두

¹⁾삼황오제설(三皇五帝說)은 중국의 문명을 개시한 신화(神話)로서, 서경에 의하면 삼황은 복희(伏羲), 신농(神農), 수인(燧人)으로, 각각 역과 목축, 농업, 불을 가르쳐준 성인이라 하고, 오제는 황제, 계곡, 전욱, 요, 순 임금으로 중국의 하(夏)은(殷) 주(周)의 봉건 세습국가 이전의 태평성대를 이룬 어질고 지혜로운 지도자들이라 전한다.

부분이었으나 당대(AD640)에 왕빙이 운기대론(運氣大論)을 삽입하여 세권이 되었다고 한다. 송(宋)학자들의 ²신교정(新校正)에 의하면 전원기의 황제내경이 가장 오래된 황제내경이라 할 수 있다. 김두종의 한국의학사(韓國醫學史)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백제(AD313) 신라시대부터 갈홍의 주후비급방, 난경, 갑을경 증장기본 들이 수시로 수입되었음이 기록되어 있다. 우리나라 학자들은 단순히 수입하는 데 그치지 않았던 것이, 조선시대말엽 이규준(李圭峻 1895~1923)은 신유학자(新儒學者)들이 주해한 경전(經典)들이 왜곡된 것이 많아서 와전되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었다. 이규준의 이러한 주장은 곧 행동으로 옮겨져서 황제내경을 위시한 의경(醫經)뿐만 아니라 유학의 경전인 육경주소(六經注疏)도 기존의 해석과는 다른 독자적 주해서를 26책이나 저술하여 편찬하였다. 이러한 그의 비판적 관점은 당시 묵수주의(墨守主義)적인 입장의 유학자들로부터 맹렬한 비난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다.¹⁹⁾

c. 서명(書名)의 뜻

황제내경의 영추는 경락학이, 소문은 의학이론이 기술되어 있다. 소문이란 뜻에 대하여 송(宋)의 신교정은 여러 가지 해석을 들었는데 그 중 중요한 것으로는 “소(素)는 근본을 가리키고, 문(問)은 황제가 지백(岐伯)에게 물었고 이 물음에 대한 근원인 오행의 근본을 각각 서술했으므로 소문(素問)이라 부른 것이다.”고 하였다. 마시 오곤 장개빈 왕구달 등은 “황제와 지백이 병을 치료하는 것에 대한 평소의 문답내용을 적은 것이므로 소문이라 하였다.”고 하였다. 또 “전원기에는 열자의 설도 들었는데 즉 열자(列子)는 형태가 있는 것은 형태가 없는 것에서 생긴다. 그러므로 태역(太易) 태초(太初) 태시(太始) 태소(太素)의 순서가 생긴다. 태역이란 기가 보이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 태초는 기(氣), 태시는 형(形), 태소는 질(質)이 각각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질병이란 기와 형과 질이 모두 갖추어진 후부터 생기므로 황제가 질병 양생(養生)에 관하여 물어 본 것은 바로 태소(太素)의 질(質)로 부터 이루어지므로 소문(素問)이라한다.”고 하였다.²⁰⁾

2. 왕관학(王官學)의 후예들

a. 역(易)과 음양설(陰陽說)

주역(周易)에 의하면 동이족 ³복희(伏羲)는 역(易)과 음양을 전해 주었다고 한다. 또 은주(殷周)시대에는 연산역(演算易)과 귀장역(歸葬易)이 있었으나 주역만이 전해졌으며, 원래 역은 사(辭), 변(辯), 상(象), 점(占)으로 활용 되던 것이

점서(占筮)로서의 역할만 남게 되었다고 한다.²¹⁾ 역사적으로 역은 주대의 왕관학(王官學)의 근간임을 알 수 있고 하 은 주는 삼황오제의 구전을 거쳐 역사시대로 이어진다.^{22,23)} 그러므로 역의 뿌리에 대하여서 저자들은 고대민족들의 태양신화(太陽神話)와 문자의 어원에서 그 근거를 짐작할 수 있었다.^{24,43)} 즉 역(易)은 태양(日)아래에서 금지할 물(勿)의 합이므로 무리를 다스리는 기준이 되었을 것이다. 음양(陰陽)은 그늘진 곳과 햇볕이 쬐이는 곳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농사의 수확을 변별하는 기준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모두는 태양을 근거로 성립된 보편적인 변증방법이다. 관자(管子)에 의하면 “밖의 일은 태양이 다스리고, 사람은 그 마음이 다스린다. 또한 몸은 기(氣)로 가득 채워져서 된 것이다.”고 하였다.⁴⁴⁾ 동주이후 태양, 기, 음양론은 노자와 공자가 각기 음양설을 다른 관점으로 전용하면서부터 태양이라는 생로병사의 근거가 퇴색된 것으로 유추 된다. 노자는 세상만사를 음양일원설(陰陽一元說)적 관점으로 보았고, 공자는 세상만사를 음양이원설(陰陽二元說)적 관점으로 보았는데 쿠르트 프리들리(Crut Friedlei)의 『서양철학사』에 의하면 통일된 인식의 결여는 과학철학의 후퇴라고 하였다.⁴⁵⁾ 전국시대로 들어가서 제자백가에는 음양가(陰陽家)가 별도로 있다. 사마천의 사기(史記) 맹자순경열전 편에는 추연(騶衍 BC350~270)이 음양가로서 매우 논리정연한 지식인이라 소개하였다.⁴⁶⁾ 음양에 대한 추연의 저술은 소실되고 연나라 소왕의 명을 받고 중국 최초의 지리탐사를 하고 저술했다는 ⁴산해경(山海經)만이 남아 있다. 그 후 추자학파들은 진시황제의 불노장생약을 구한다는 핑계로 발해를 거쳐 일본으로 망명하였다고 한다.²⁸⁾

b. 노자(老子)와 공자(孔子)의 자연관

춘추시대에 들어와서 노자(BC 565~?)와 공자(BC 551~485)는 왕관학(王官學)에서 유래된 역(易)과 음양(陰陽)을 서로 다르게 전용한 것으로 드러난다. 노자는 도덕경 제 42장 도화(道化)에서 만물(萬物)은 ⁵부음이포양(負陰而抱陽)하여 충기이위화(沖氣以爲和)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도화는 만물생성의 원리가 공통성을 가지는 이치는 하나가 둘로 갈라지고 둘이 어울려 삼인 형체가 되고 이 삼이 곧 만물이다. 만물의 공통성은 음양(陰陽)이 엮고 안고 있는 모습이며 이것은 기(氣)의 충동으로 변화되는 모습이라 설명하였다. 노자는 이 서로 상반되는 음양으로서 변증론을 완성하였고,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이 하나로 연결되는 관념철학을 완성

²AD10057년 송(宋) 가우(嘉祐)는 교정의서국을 설립하고 임억(林億), 고보형, 손조로 하여금 당(唐)의 의서(醫書)인 소문, 영추, 백경, 갑을경, 상한잡병론, 신농본초경, 소씨병원후론, 천금방, 천금의방, 외대비요 등을 교정케 하고, 그 다음으로 몇몇의 규모가 큰 의방총집을 편찬케 했다. (중국의학사 140 p)

³최근 중국은 만주유역의 홍산에서 동이족의 선사문화유적지를 발굴하였다. 이는 지금까지의 전설로만 여겨지던 삼황오제설의 유래를 알게 해주는 일로서 삼황오제설이 실제의 역사로 편입될 가능성이 엿보인다고 흥분해 있다. 한편 우리나라 민속학자들은 이곳의 씨족들은 한국의 신화인 곰신과 태양신을 믿던 씨족들이므로 동이족 복희와 유공인 황제는 고조선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역사해석의 논쟁이 되고 있다.

⁴산해경에 의하면 추연은 외래학자로 소개되어 있고 발해를 건너 일본으로 망명했다는 것과 일본과 우리나라의 국기가 모두 태양을 나타내고, 중국의 신화학자가 태양신화는 고조선에서 건너온 것이라는 말과 무관하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⁵負; 빛질부, 엮음부, 抱; 안을포

하였다. 이는 무에서 유가 생성된다고 하여 곧 형이상학적 사유의 근거는 형이하학적 실체로부터 생성된다는 관념이 동양학문에서 인문철학과 자연과학의 통일적 근거를 확립하고 있다.^{5,8,10,47,48)}

공자는 하늘은 양이고 땅위의 모든 생사를 지배한다는 경천사상(敬天思想)으로 인간다운 삶의 지침으로 삼았다.⁴⁹⁾ 이러한 공자의 음양은 “하늘 임금 남자는 양이고, 땅 신하 여자는 음으로 지배되고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지정하였다.” 공자의 자연관은 천인상응사상(天人相應思想)을 확립할 수 있어서 왕권을 강화시키고 가정을 통솔할 수 있었기에 중국의 한 400년, 조선의 500년을 강력한 국가로 안정시킬 수 있었다.^{50,51)} 이것이 유교사상(儒敎思想)이다.

황제내경의 음양별론(陰陽別論)과 주역의 팔괘생성도(八卦生成圖)는 모두가 음양이원론적 자연관을 나타낸다. 노자와 공자의 사상은 동양사상의 꽃을 피우는 제자백가의 원동력이 되었다.^{52,53)} 노자의 사상은 장자(莊子 BC 369~286)가 뒤를 이어 노장철학을 완성시키고, 공자의 사상은 맹자(孟子 BC336)가 뒤를 이어 공맹사상을 완성시켰다.⁵⁴⁾ 이 당시 음양가인 추연의 ⁶오덕종시편(五德終始編)에서 오행상생상극설이 나왔다고 전하는 것은 맹자가 추연을 적극 존중하여 지지하였고, 오행론을 펼치는 것을 순자(荀子)가 맹렬히 비난 하는 일이 사마천의 사기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오덕종시편은 하극상(下剋上)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고, 천인상응은 왕권을 확립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이 두 가지는 자연스럽게 융합되어 차츰 국가질서 및 가정의례준칙으로 이용되었고 결국에는 질병의 진단이론으로도 도입되었던 것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역대 학자들 가운데에는 이러한 사변적 지정에 대하여 꾸준히 이의를 제기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⁵⁵⁻⁵⁷⁾ 이와 같이 동양학문은 거의 전국시대(戰國時代)에 틀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기원전 3 세기의 제나라의 선왕(宣王)은 직하(稷下)에 철학자들을 불러 모았는데, 시기와 성격이 그리스의 아테네학당과 꼭 같다.⁴⁶⁾ 진시황제는 통일을 이룬 후 국가제의(國家祭儀)를 알지 못하는 유학자들을 무식하다는 이유로 분서갱유의 만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이에 추자학파들은 추연(鄒淵)이 남긴 봉선서(封禪書)에 의지하여 국가제의를 지낼 수 있었다고 사마천은 전한다. 사마천에 의하면 당시 지식인들은 황노학자들이 많았고, 이들은 매우 풍부한 지식의 소유자들이라 하였다. 중국의 천문역력(天文曆歷)은 사마천의 사기에 의하면 BC 145년 경의 천관서(天官書)가 고증자료로 나온다.²⁴⁾ 그러나 BC 174년 한 무제는 황노사상(黃老思想)을 탄압하고 유학이 지배하는 사회로 만들었다.^{58,59)} 이 때문에 동양과학은 멈춰버

렸다고 말할 수 있다.⁶⁰⁾

c. 한(漢)의 상수역(象數易)과 송의 정주이학(程朱理學)

문명의 개시자인 복희가 전해준 역(易)과 음양은 주역(周易) 십익(十翼)이 육효사(六爻辭)로 나타나고 있다. 육효사란 팔괘(卦)를 단전상하로 두고 해석하는 일이다. 괘를 보면 세 가지라서 노자가 말한 삼(三)이 만물이라 한 것과 일치된다. 공자는 이 괘상(☰, ☷)들을 상하로 두어서 육효에 사를 붙였다. 논어에 의하면 공자는 제자들에게 창작하지 말 것을 가르쳤으며, 자기도 창작한 것이 없다고 하였기에 주역 십익이 공자의 저술이 아니라는 사람도 있다. 주역은 동한(東漢) 이후 상수역(象數易)으로 변천하였다. 상수역이란 모든 사물의 구체적 사항이나 국가의 대사를 수(數)로서 표현하는 ⁷상수학(象數學)을 역에 도입한 것이다. 복숭은 이것을 황하와 낙수에서 신령스런 용마와 거북이가 등에 업고 나왔다는 하도(河圖)와 낙서(洛書)에 근거를 두고 참위학(讖緯學)으로 권위를 부여하여 미래학으로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한이 멸망 후 왕필(王弼 AD 226-249년)은 상수역에 도가적 해석을 부여하여 비로소 역경(易經)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21,61-63)}

한이 멸망한 후 위진남북조시대를 거치면서 불교와 도교의 신선사상이 번창하고 유학은 침체하였다.⁶⁴⁾ 이에 북송(北宋)의 주돈이(周敦爾 1017~1073)는 도가(道家)의 참동계(參同契)의 우주생성원리인 수화구극도(水火口廓圖)를 모방한 진박(陳搏 871~989)의 무극도(無極圖)를 우주생성원리로 채택하였다. 송이 통일을 이룩한 후 정명도(程明道)와 정이천(程頤川) 두 형제는 이성론(理性論)을 주장하여 성리학(性理學)을 완성시키고 무극도를 취합하였다.⁶⁵⁾ 이에 유학자들이 반발하자 주희(朱熹)가 무극도를 태극도로 교정하여 주자학(朱子學)으로 발전시켰다. 정주이학(程朱理學)의 특징은 공자의 실재주의적 관점에 비하여 형이상학적 정신세계가 물질세계를 지배한다는 관점이 우세하였으며 교육으로 관리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송학(宋學)을 신유학(新儒學), 또는 후세학, 성리학(性理學), 정주이학(程朱理學), 이학(理學)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고, 의학의 황제내경도 사변적 음양오행설을 위주로 하였으므로 후세학파라고 부르는 것이다.

신유학자들은 여전히 경천사상을 위주로 하였고, 주대의 예기(禮記)는 대학(大學)과 중용(中庸)에 편입하고 논어(論語) 맹자(孟子), 춘추(春秋), 시경(詩經), 서경(書經), 역경(易經)인 사서삼경(四書三經)을 주요 교과목으로 하였다.⁶⁶⁾ 신유학자들은 학문의 과학적 체계의 중요성을 깨닫고 변증론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법방약(理法方藥)의 체계를 주장하였지만, 황제내경이 채택한 사변적 음양오행설에 의한 장

⁶오덕종시편은 은(殷)때로부터 전해 받은 홍범구주(洪範九州)에 의한다고 하였다. 도가와 음양오행설과 노자와의 관계는 아마도 노자가 동주시대의 사관(史官)이라는 직책을 가진데서 오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관이라는 직책은 국가의 제의(祭儀)를 시행하는 사람인데, 추자학파 역시 방사(方士)라 불려 같은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노자와 추연이 남긴 서적에는 음양오행설이 이용되지 않았다.

⁷상수학은 그리스의 피타고라스(BC 580~500)가 사용했던 정의는 6, 곱흔은 5, 서약은 10과 같이 수로 표현 하는 것과 비교된다.

부배당이 상한론의 체계에 부합되지 않았다. 영국의 조셉니덤이 동양과학은 노자에 있다고 한 것은 바로 노자의 변증론과 인식론의 통일을 두고 한 말인데 이것이 무시되어 있다.⁵⁷⁾

훈고학자 주대박은 “훈고학(訓詁學)이란 고대의 언어를 본래대로 연구하는 학문인데, 송대(宋代) 훈고의 특징은 성리학사상(性理學思想)이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하여⁸ 주소(注疏)는 박학(樸學)에서 성리학(性理學)을 선전하는 도구로 변질되었다. 북송의 정이(程頤)와 남송의 주희(朱熹)를 대표로 하는 정주학과(程朱學派)는 이학을 전파시키고 발전시켰다. 소위 정주이학(程朱理學)은 도가와 불가사상의 영향아래 생겨난 유가의 새로운 학파로서 내용은 주로 정심(正心) 성의(誠意) 치지(致知) 격물(格物) 그리고 심성(心性)의 이(理)를 강론하는 것으로 일종의 유심주의 사상체계이다. 이는 당시의 정치적인 요구에 적응하기 위한 봉건통치사상이었다. 그래서 중국의 경학(經學)은 한학(漢學)과 송학(宋學)으로 사상이 또다시 구분된다. 한학(漢學)이라면 주로 한대의 경학(經學)을 의미하고 주로 고문경학자(古文經學家)들이 고대의 언어와 문자의 훈고와 각종 명물 제도의 고증에 관련된 학문을 만들었다. 한학자(漢學家)들의 훈고와 고증은 비교적 실제적이고 공리공론(空理空論)을 숭상하지 않았으며 지나치게 번거로운 수식을 하지 않았기에 박학(樸學)이라고 불렸다. 송학(宋學)은 송의 신유학자들이 창안한 이학(理學)을 가리킨다. 또한 고서(古書)에 대하여서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것을 변위(辨僞)라는 것이 있어서 고서의 진위(眞僞)를 잘 판단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농가(農家)에는 『신농(神農)』 12편이 있는데 그 주(注)에 “육국시대(六國時代)에 제자들이 농업에 태만한 세태를 걱정하여 신농(神農)을 빌렸다.”고 하였는데 그 내용 또한 천박하다. 반고(班固 AD 32~92년)의 『한서예문지(漢書, 藝文志)』에 보이는 의경류(醫經類)인 『황제내경』 18편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위작(僞作)이지만 훌륭한 책이어서 지금까지 전해진다.”고 하였다.

3. 다원론도입

a. 음양오행설(陰陽五行說)의 응용

황제내경의 음양응상대론(陰陽應象大論)에 의하면 “황제께서 말씀하셨다. 음양이란 천지의 도이며 만물의 근본이며 변화의 모체이며 생살(生殺)의 본시이며, 신명(神命)의 부이니, 질병을 고치는데 있어서도 이 음양의 치료에 기준을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¹³⁾ 금계진언론편(金眞言論篇) 제 4에 의하면 “황제가 물으셨다. 하늘(天)에는 팔풍(八風)이 있고 경(經)에는 오풍(五風)이 있다고 들었는데 무슨 뜻이요?. 팔풍이란 각 방향에서 불어오는 바람인데 이것이 사풍(邪風)이 되어 인체의 오장에 침입하면 병이 되므로 오풍이라고 합니다. 사시(四時)에도 이기는 것이 있어서 봄(春)은 한 여

름인 장하(長夏)를 이기고, 장하(長夏)는 겨울인 동(冬)을 이기고, 겨울은 여름인 하(夏)를 이기고, 여름은 가을인 추(秋)를 이기고, 가을은 봄인 춘(春)을 이긴다. 이것은 허약한 장기가, 그 장기(臟器)를 이기는 계절에 가서 패(敗)하여 발병되는 것으로서 이것과 사풍(邪風)과는 별개입니다.”고 음양오행의 이치를 설명하였다. 황제내경이 음양이원설을 택한 것은 주역(周易) 양효(-)와 음효(--로 시작하는 추리상(推理象)과 같다. 그래서 황제내경의 음양은 천지(天地), 부모(父母), 일월(日月), 군신(君臣), 남녀(男女), 기혈(氣血), 표리(表裏)와 한열(寒熱), 장부(臟腑), 허실(虛實)로 해석된다. 이것은 그 기준이 모호하여 매사에 반증을 일으키고 있어서 논리적 합의를 도출하기가 어렵다. 본초경은 사원설(四元說)을 쓰고 있어서 불교 및 지중해의 사원설을 융합한 것으로 보인다. 또 황제내경이 취한 다원설은 최초의 통일국가인 진(秦)이 지정한 육경(六經)이 슈메르 문명의 육법과 같고 이집트의 오원설(五元說) 인도의 오원운동(五元運動) 지중해의 점성술(占星術) 등의 고대 다원설(多元說)이 모두 망라되었음을 알 수 있다. 황제내경의 이러한 이론체계는 수많은 반론을 불러일으키고, 결국 명 청대에 이르러서는 복고주의 고증학파가 탄생되었으나 서구과학에 밀려 더 이상 발전을 이루지 못하였다.⁶³⁾

b. 병인학설(病因學說)의 발전

황제내경 소문생기통천론제삼편(生氣通天論篇第三)에 “하늘에는 다섯 개의 운(運)인 오운(五運)과 여섯 개의 기(氣)인 육기(六氣)가 있어서 태양 소양 양명 태음 율음 소음에 있는데 각 기후는 오행성의 기에 의거하여 변화를 가진다고 언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 하늘의 기(氣)에 순응한 생활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그 사기(邪氣)에 상(傷)한다.¹³⁾ 요컨대 이 오운육기(五運六氣)의 천기(天氣)에 순응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천수(天壽)가 결정지어 진다는 생각을 하였다. 이리하여 황제내경은 질병의 원인을 육기(六氣)인 풍(風), 한(寒), 서(暑), 습(濕), 조(燥), 화(火)의 기후에 접촉한데서 온다고 보았다. 이로서 상한론의 조문에 나오는 상한(傷寒)의 해석을 황제내경의 육기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의학입문도 상한은 모든 질병의 원인이라고 하였지만 겨울에 잠복했다가 봄에는 풍, 여름에는 서와 습으로 가을에는 조로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송 이후의 유명한 금원사대가(金元四大家)들 역시 황제내경의 병인학설을 응용하여 각과학설(各科學說)을 제창하게 되었는데 유하간(劉河間)은 상한이 질병의 주원인이 아니고 화가 질병의 주원인이라는 주화설(主火說)을 제창하고 청열약을 주로 사용하게 되는 공사학파(攻瀉學派)가 등장하였다. 이에 반하여 습이 모든 질병의 원인이라는 주습설(主濕說) 비위(脾胃)허약이 모든 병의 원인이므로 비위를 온보(溫補)하는 장부론에 입각한 보토파(補土波) 즉 기가 모든 병의 원인이라는 주기설(主氣說) 등의 각과학설(各家學說)을 제창하고 모두가 황

⁸⁾注疏는 논어주소 등과 같이 옛글을 알기 쉽게 해석하는 것. 박학(樸學)은 원래대로란 뜻.

Table I. 오행 배당표¹⁹⁾

五行	五臟	五腑	五味	五季	五根	五常	五惡	五體	五聲	五志	五方	五色	天干	地支	生數
木	肝	膽	酸	春	眼	仁	風	筋膜	呼	怒	東	青	甲乙	寅卯	3,8
火	心	小腸	苦	夏	舌	禮	熱	血脈	笑	喜	南	赤	丙丁	巳午	4,9
土	脾	胃	甘	長夏	脣	信	濕	肌肉	歌	憂思	中央	黃	戊己	辰戌丑未	5,10
金	肺	大腸	辛	秋	鼻	義	燥	皮毛	哭	悲	西	白	庚申	申酉	2,7
水	腎	膀胱	鹹	冬	耳	智	寒	骨髓	呻	恐驚	北	黑	壬癸	亥子	1,6

Table II. 육경전서(六經典書)에 배당된 각기다른 오행표⁶⁵⁾

서명	木	火	土	金	水
呂氏春秋	脾	肺	心	肝	腎
古文尙書	脾	肺	心	肝	腎
今文尙書	肝	心	脾	肺	腎

제내경을 근거하였다고 하였다.¹¹⁾

c. 사변적 오행배당표에 의한 장부변증(臟腑辨證)⁶⁹⁾

황제내경은 장상학과 삼부구후맥법(三部九候脈法)에 의거하여 오장육부의 질병을 진단한다. 이는 맥과 오장육부를 음양오행설에 의거하여 각각 배당하였고 자연의 만물도 모두 음양과 오행에 배당시켜서 서로 간의 관계를 상생상극의 이치에 적용시켜 왔다. 그래서 오장육부는 각기 음양으로 구별하고 다시 오행으로 구별하게 되어 있다. 삼부구후맥법 역시 양쪽손목의 요골동맥을 중심으로 각각 촌구(寸口) 관상(關上) 척중(尺中)으로 나누어 인체의 장기를 배당시켰다. 오행배당표에 의한 진단 예를 들어보면 “심(心)이란 음장(陰臟)이고 다시 화(火)에 해당된다. 색은 붉은 색이 화(火)에 해당하고 혀(舌)가 화(火)에 해당하므로 혀가 붉으면 심열(心熱)이 있다고 진단한다. 만약 혀와 얼굴이 지나치게 붉은 상태를 병적상황으로 의심하고, 나머지는 다른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결론을 내린다. 이러한 종합적 결론은 전적으로 의사(醫師)의 경험과 판단에 따른다. 그 기술은 주관적이고 계속된 숙련에 의존된다. 예를 들면 황제내경 음양별론편(陰陽別論篇) 제 7은 “대체로 음(陰)의 작용이라는 것은 조화를 하는 역할이다. 그것이 조화를 깨트리고 내부에서 항쟁하게 되면 양이 그 주된 역할을 하지 못하여 양은 음의 신하(臣下)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양은 마음대로 뛰놀게 되어 마침내 자멸해 버린다. 양이 자멸하면 양이 없는 음이란 있을 수가 없으므로 음도 역시 없어진다. 비록 양(陽)이 자멸하고 후에 음이 단독으로 왕성해 진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는 이미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경맥(經脈)은 두절된다. 사음(邪陰)에 속하는 것은 3일 이내에 사망한다. 그러나 생양(生陽)에 속하는 것은 4일 이내에 낫는다는 말이 있다. 이들 생양(生陽)이라든지 사음(邪

陰)이라는 말은 병이 오장(五臟)사이에서 과급되는 상태에 따라 붙인 것이며, 간에서 심장으로, 상생적(相生的)으로 양(陽)의 장기에 전해지는 것을 생양(生陽)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해부생리의 구체적 관찰을 사변적인 상수(象數)이론으로 설명하고 오행으로 배당된 장부론의 상생상극설은 사변적 장상학(臟像學)의 확대를 꾀하게 되었다.⁶⁹⁾ 병인설의 7정(七情)도 정서적 감정이 인체의 장기에서 생성되는 것이라 하여 오행으로 배당하고 관찰대상으로 하였다. 이러한 근거는 모두 병용대표라는 원칙이 사변적으로 이용되었던 것으로 Table I의 오행배당표에 의지한다. 즉 木의 간(肝)과 담(膽)은 표리이며, 혼(魂)이 있는 곳이다. 火의 심(心)과 소장(小腸)은 표리관계이며 신(神)이 있는 곳이다. 土의 비(脾)와 위(胃)는 표리관계이며 의(意)가 있는 곳이다. 水의 신(腎)과 방광(膀胱)은 표리관계이며 지(志)가 있는 곳이다. 金의 폐(肺)와 대장(大腸)은 표리관계이며 백(魄)이 있는 곳이고 지정하는 것은 보편적 함의를 이끌어 낼 수가 없는 점이다.

d. 오행배당표에 대한 비평적 시각

일본의 중국철학연구가 가노나오키(狩野直喜)는 오행의 기원과 오행배당에 대하여 “오장(五臟)을 오행으로 배당하는 것은 여씨춘추(呂氏春秋) 고문상서(古文尙書) 그리고 금문상서(今文尙書)가 각각 다르다고 하였다. Table II 에서와 같이 여씨춘추와 고문상서는 비목(脾木) 폐화(肺火) 심토(心土) 간금(肝金) 신수(腎水)이지만 금문상서는 비토 폐금 심화 간목 신수로 배당하여 황제내경과 같다. 이와 같이 오행배당은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진 것이 아니고 서적에 기술된 학자들마다의 설명이 견강부회(牽強附會)한 면이 많다. 오늘날로 본다면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지만 한유(漢儒)들이 모든 곳에 오행을 끌어 들여서 논거로 삼았다.”고 하였다.^{63,67,68)}

e. 한의약학의 난제들

① 「동양의학과 서양의학」

Y 한의대 이상룡 교수는 생활한방 편에서의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이란 제하(題下)의 수필에서 “과학은 객관적 사실을 중요시 하지만 직관과 경험은 매우 주관적이다. 분명 한의학(韓醫學)은 미(未)과학이 아닌 비(非)과학의 영역이요 다

분히 사변적(思辨的)인 학문(學問)의 특성이 있다. 어쩌면 한편의 시를 읽는 것과도 같다. 그렇기에 한의학(韓醫學)을 이해하려는 사람은 상징주의적 미학도(美學度)가 되어야 할 것이다. 어차피 한의학(韓醫學)의 상징성은 그만큼 많은 이론과 학설을 배양시켰으며 지금도 똑똑한 젊은이들을 헛갈리게 하고 있다. 이것이 한의학의 야누스적 실체이다. 한의학은 분명 철학적 과학이다. 분명히 한의학(韓醫學)은 진리가 아닌 학문(學問)이요 가설(假說)에서 시작되었다. 누군가에 의해 음양오행(陰陽五行)보다 나은 한의학이론(韓醫學理論)이 창안되고 경락을 새롭게 그려낼 수 있는 혁명가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한의학(韓醫學)의 전문가들은 대체로 동양의약학은 과학(科學)이 아닌 사변적 그리고 형이상학인 상(象)이 작용하는 직관의학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⁷⁰⁾

② 『주역(周易)과 수리·물리학』

이것은 2002년 8월 사단법인 동방문화진흥회 부설인 흥역사상연구소에서 개최한 제4회 주역학 학술대회의 5대 일간지에 선전된 공개세미나의 주제이다. 이 세미나의 논문과 논평문들에 의하면⁷¹⁾

첫째,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장희익은 주역(周易)과 물리학의 차이는 ㉠ 주역은 서구적 의미의 과학이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문화적 상황에서 만들어져서 전수되어 온 동아시아의 대표적 지적유산이다. ㉡ 주역(周易)에서 말하는 상(象)의 개념과 물리학의 상태(狀態)개념을 비교해 본다면 물리학에서 상태개념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물리학을 모르는 것과 같이 주역에서도 상(象)의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주역을 모르는 것과 같다. 그러나 주역에서의 상(象)개념은 그 쓰이는 문맥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 먼저 그 상(象)을 이용하여 물건을 만드는데 도움을 얻는다는 말부터 생각해 보자. 현명한 사람(聖人)이 사물의 외형적인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니는 그 어떤 실상(實像)을 파악할 능력을 가지며 이를 통해 우리에게 유용한 물건을 만들어 기술적 활용에 이를 수 있다는 말로 해석할 수가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주역을 공부해 온 동양에서는 자생적으로 물리학과 그 기술적 활용에 이르지 못하고 주역을 알지 못했던 서구에서 오히려 물리학을 발전시켰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를 구태여 짚어 보자면 동양의 학자들이 주역에 말하는 상(象)의 개념을 지나치게 괘상(卦象)의 개념으로만 한정하였다. 이것은 자유로운 사유를 막았을 가능성이 있고 또 이러한 상(象)이라는 것을 오직 추상적 차원에서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물리학에서와 같이 구체적 서술을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주역이 설혹 이러한 가능성을 제시했다라도 이것이 구체적 과학발전에 연결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 따라서 물리학의 체계 혹은 과학철학의 체계로서의 주역은 결과적으로 크게 성공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

다. 이에 대한 ㉤ 장원목 철학박사의 논평문은 “인간의 길흉화복을 점치던 점서로 출발한 주역과 자연현상의 실증적 과정을 설명하는 과학의 기본원리를 제공하는 물리학과 전체적 비교는 납득하기 어렵다. 2000년 이상이 된 고전과 200년도 채 안된 현대물리학을 왜 굳이 비교해 보아야 하는 지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유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둘째, 부경대학교 강용균 교수의 ‘오행의 수학적 모형’에 대하여 ㉥ 음양오행(陰陽五行)은 한의학(韓醫學)의 주요이론으로 오랫동안 활용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정성적 단계이며 정량적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 글에서 제시된 오행의 수학적 모형이 한의학의 이론과 결합하여 인체의 균형에 대한 정량적 시뮬레이션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상생상극계수나 평형조절율(平衡調節率) 등과 같은 파라메타의 값을 구체적으로 지정해주어야 한다. ㉦ 이런 파라메타의 구체적인 값은 임상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도출될 수가 있다. 처방의 효과를 미리 정량적으로 예측하는 일에 오행의 수학적 모형이 실제적으로 활용되었기를 기대한다.

셋째, 한의과 대학 이성환 교수의 ‘과학이 발견한 역경의 원리’에 대한 원광대 동양철학과 임채우 교수의 논평문을 요약하면 ㉧ 동양에서 주위환경을 이해하던 관점인 역학(易學)이 곧 음양오행론(陰陽五行論)이라고 역학의 근본이론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 학자마다 약간의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음양오행과 역학은 발생 계통이 다르다. 진한시대(秦漢時代)에 들어와서 양자가 결합되기 시작했다는 것이 현재 학계의 통설임을 밝혀둔다. ㉨ 논문에서 「역경은 지구상의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물이나 현상의 변화 패턴만을 도시(圖示)한 책이 아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소립자의 세계나 은하계 밖의 몇 억 광년이나 떨어진 별에 사는 미물에게도 적용되는 공통패턴을 도시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과연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일까 궁금하다. 가령 필자는 오랫동안 명상수련을 하신 분에게 질문한 적이 있다. ㉩ 동양철학의 근간이 되는 음양이론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 나름대로는 동양 뿐 만 아니라 동서양을 관통해서 전 지구적인 이론 체계로서 정립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했다가 부정적인 답변을 들었다. 뒤에 어디에선가 화성인가 금성에서는 그 자전궤도상 태양이 하루에 두 번이나 떴다가 진다는 말을 들은 적도 있다. 이럴 경우 우리가 생각하는 음양적 구조로서 이들 행성의 태양운동을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 은하계의 행성들에는 제각각의 위성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음양의 대칭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를 어떻게 음양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지를 여쭙고 싶다.” ㉪ ‘역경속의 프랙탈 패턴’이라는 제목에 대하여서는 프랙탈 이론으로 접근한 주역적 사고방식이 많은 정보를 담고 있으면서 시사 하는 바가 많아서 대단히 흥미롭고도 유익했다. 본 연구자가 볼 때는 한의학(韓醫學)의 주체인

황제내경이 사변적 형이상학적 직관의학이라고 판단한다면 이 직관(直觀)과 사변성(思辨性)이 구체적 사실로 유도할 수 있어야 질병치료에 유익한 의약학(醫藥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⁷¹⁾

③ 『세계의학사』

독일의 아커크네히트는 그의 세계의학사를 통하여 “서양에서는 과거의 경험적 의료사실에 대하여 끊임없이 연구하고 평가하고 있다. 즉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현대 의학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고전(古典)으로 내팽개 쳐둔 임상학적 관찰요법과 암시(Suggestion)인 증상(症狀) 등이 치유사실에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었다. 미국은 새로운 이론의 개발을 위하여 의약학과는 무관한 것까지 교과 과정표에 광범위하게 채택하고 있다고 한다. 또 의사학이란 의사와 일반사람들까지 반드시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㉔ 임상 의사와 환자들이 시행착오(Versuch und Irrtum)의 기간을 단축시킬 목적 ㉕ 얼마나 자주 오늘의 유용한 것들이 내일의 더 유익한 것으로부터 버려져 왔는가 ㉖ 때로는 훌륭한 것들도 비합리적인 이론과 유행들로 인하여 안타깝게도 묻혀 버렸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⁷²⁾

f. 한의학의 패러다임의 변천

고려가 망하고 이씨조선의 500년 간 유교를 국교로 삼았다. 특히 송의 정주이학의 영향을 받은 조선유학은 정신세계는 물질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 이러한 사상은 자연과학기술이 비하하고, 예기의 도덕적 관념을 지나치게 숭상하는 허례허식의 폐단을 낳았다. 이 때문에 세종대왕을 위시하여 영정조시대의 역대임금들이 유학자들과 정치적 논쟁을 자주 일으키는 사실이 조선 역사에 드러나고 있다. 이리하여 조선의 사단칠정론(四端七情論)에 대한 철학적 논쟁이 400년간 이어지게 된 것이다. 그 주된 발단은 기대승과 이황의 논쟁이었는데, 즉 정신과 물질을 이기이원론으로(理氣二元論) 정립해야 한다는 학파와 정신과 물질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이기일원론(理氣一元論)학파로 갈라졌다. 전자는 성리학으로 이황을 따르는 영남학파이고 후자는 실학으로 기대승-이율곡으로 이어지는 기호학파이다. 조선의 사상의학(四象醫學)도 이기이원론적 관점에서 탄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73,74)} 왜냐하면 소문의 각 장부와 7정을 연결하여 체질분류와 질병진단의 근거로 삼았는데 사람의 성품은 타고나서 이에 지배된다는 관점이다,⁴⁾ 이러한 연유로 한국인들은 전통의학을 철학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18,73,74)}

본초경(本草經)

1. 본초경의 연역과 개괄

신농본초경(神農本草經)은 서한(西漢) 말년에서 동한(東漢) 초기에 약 200년 사이에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이것 역시 당시의 의가(醫家)들이 한(漢) 이전부터 경험하여 왔던 용약에

대한 지식을 집대성하여 신농(神農)이란 이름을 붙여서 전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다. 이 책은 약하여 본경(本經)이라고도 하는데 당(唐)초기에 원본이 소실되었다. 양(梁)대의 도홍경(陶弘景 AD 452~536)이 본경에 명의별록 365종을 합하여 730종의 약을 추가하여 만든 신농본초경집주(神農本草經集註)가 본경을 대신하여 원전(原典)으로 전해진다. 분류방법은 독성의 정도에 따라서 상중하(上中下)로 나누고 다시 자연의 속성에 따라서 옥석(玉石) 초(草) 목(木) 충수(蟲獸) 과채(果菜) 미식(米食) 그리고 이름만 있고 사용하지 않는 것 등의 7 유(類)로 나누었다. 진 한대에는 서역으로부터 번홍화 포도 호도 등의 약재가 수입되었고 소수민족과 변방지역으로 부터 서각 호박 사향 여지 용안 등이 들어와서 풍부한 내용을 갖추게 되었다.⁷⁵⁾ 도홍경(陶弘景)의 본초경집주(本草經集註)는 이시진의 본초강목 1800 종으로 늘어나고 오늘날의 중약대사전은 5767종의 천연물대백과사전을 이루게 되었다. 중약대사전에는 각종 천연약물의 성분과 약리 임상보고 및 연구문헌 등이 역대의 본초경의 내용과 함께 기술되어 있다.

2. 신선류과의 후예들⁶⁴⁾

a. 기미론과(氣味論)과 음양오행설

본초학(本草學)과 황제내경은 음양설을 사기설로, 오미설은 오행설로 결부시키고 있다. 그래서 본초학의 약성론은 기미론이라고 하는데 사기오미설(四氣五味說)에 의지한다. 사기설은 모든 약물은 하늘로부터 한열온량(寒熱溫涼)의 사기(四氣)를 받고 땅으로 부터는 감고신산함(甘苦辛酸鹹)의 다섯 가지 맛을 얻어서 그 형질(形質)이 갖춰진다고 생각한다. 황제내경 소문에 의하면 ① 『지진요대론(至眞要大論)』은 ‘寒者熱之, 熱者寒之’하라. 즉 차가우면 따뜻하게 가열하고 열이 많으면 차갑게 식히는 지극히 보편적인 원칙이 적용된다.

② 『장기법시론(藏氣法時論)』은 “辛酸, 甘緩, 酸收, 苦堅, 鹹軟”한다. 즉 매운 맛은 기(氣)를 분산시켜서 소통하게 하고 단맛은 기혈을 보(補)하고 경련(痙攣)을 완화한다. 또 신맛은 수렴하고 수축시킴으로서 흘러나가는 것을 그치게 하며 쓴맛은 습한 것을 건조시킬 수 있고 짠맛은 부드럽게 풀어서 배설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③ 『선명오기편(宣明五氣篇)』은 “五味所入, 酸入肝, 辛入肺, 苦入心, 鹹入腎, 甘入脾, 是爲五入也”라. 오미가 각 장기에 들어가는 것이 다른데 즉 신맛은 간, 매운맛은 폐, 쓴맛은 심장, 짠맛은 신(腎), 단맛은 비(脾臟)로 들어가므로 오입이라 한다.

④ 『음양응상대론편(陰陽應象大論篇)』에는 “味厚者爲陰, 薄者爲陰中之陽, 氣厚者爲陽, 薄者爲陽中之陰”라. 맛이 진한 것은 음(陰)이고 맛이 담백(淡白)한 것은 음속의 양이며 기(氣)가 풍부한 것은 양(陽)이고 기가 경미(輕微)한 것은 양속의 음이라 하였다. 이것은 후세본초학의 승강부침설

(昇降浮沈說)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다. 고대 인도의학은 약물이용이 많았는데 여기서도 한약(寒藥)과 열약(熱藥)으로 분류하고 다시 다섯 가지요소로 분류하는 점은 본초와 같다.⁹⁵⁾ 한이 멸망하고 위진(魏晉 AD 220~316)대는 신선류파에 의한 도교가 번창하였다. 도교는 다시 불교를 흡수하였으며 이시대의 학풍을 청담사상 또는 현학이라고 한다. 도교를 완성한 갈홍(葛洪)은 도교에 불교사상을 가미하였고 제자 도홍경은 불교사상에 도교를 접목하여 본초집주(本草集註)를 저술하였다고 한다. 약학대학의 본초학(本草學)에 의한 황련(黃蓮)을 예로 든다면 “황련은 성미(性味)는 고한(苦寒)하고 귀경(歸經)은 심 간 위 대장이다. 임상 사용상의 요점에서는 대고대한(大苦大寒)하다. 한(寒)으로 청열하고 고(苦)로 조습하여 심간위간담의 실화(實火)를 청사하고 위장적체의 습열을 제거하여 청심제번(淸心除煩) 소비지리(消痞止痢)하는 작용이 있으며 습화울결(濕火鬱結)에 대한 주약이다. 그러므로 심화치성(心火熾盛)의 번열신혼(煩熱神魂) 심번불면(心煩不眠) 복통설사(腹痛泄瀉) 등의 요약이다. 또 청열사화(淸熱瀉火) 해독작용도 있으므로 정독옹종(疔毒癰腫) 구설개양(口舌潰瘍) 습창소양(濕瘡癢) 및 박혈망행(迫血妄行)의 토혈늑혈(吐血衄血)에도 효과가 있다.”고 풀이하였다. 또 본초경엔 “主熱氣日痛 傷淚出 明目 腸癰 腹痛下痢 婦人陰中腫痛. 주로 열기목통 눈에 분비물이 많이 나와서 보이지 않을 때 눈을 밝게 해준다. 오래된 설사복통을 치료하고 부인의 음부가 붓고 아픈데 치료한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장부에 열(熱)이 있으면 아프고 염증이 생기고 가렵고 코피가 나거나 잠이 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차가운 황련으로 치료하는 것이다.⁷⁶⁾

b. 귀경설(歸經說)

금(金)대의 장원소(張元素)는 약성론에 대하여 지대한 연구를 하였는데 개별 약물마다 기미(氣味) 음양(陰陽) 승강부침(昇降浮沈)의 작용을 규정짓고 또 그의 『진주낭(眞珠囊)』에서는 장부에 귀경으로 들어가는 것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¹¹⁾ 귀경설은 경락과 오장육부가 연결된 이론을 형성하게 되자 약물도 경락에 친화하는 것으로 보고 귀경설(歸經說)을 발표하고 약물의 인경보사설(引經補瀉說)을 치료에 응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귀경설은 모두 오행배당에 의존한다.¹¹⁾

3. 방제학의 패러다임 변천

방제학(方齋學)이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 처방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한약방제학의 대원칙은 정체관념(整體觀念)과 변증시치(辨證施治)이다. 정체관념은 신체 오장육부의 결여된 곳을 빠르게 수정해 주는 개념이고 변증시치란 반드시 변증(辨證)을 근거로 치료에 임한다는 뜻으로 진단과 치료의 객관적 논리를 말한다. 증(證)이란 약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확실한 조건들을 근거로 삼아서 분별(分別)을 삼는다는 뜻이 변증시치이다.

이러한 기본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다른 수법

들을 도입하여 변천시켜왔다. 예컨대, 이러한 도입은 천동설과 별자리에 의한 운명지정설인 점성의학(占星醫學)을 도입했을 가능성이 엿보인다. 이외에도 방제의 패러다임변천은 처방명칭에서도 드러나는데 상한론에는 고대의 신화적 이름인 청룡탕 진무탕 백호탕 주작탕과 계지탕 마황탕과 같이 주요 약물명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사군자탕이니 육군자탕(六君子湯)은 도가적 패러다임에서 나왔고, 군신좌사설(君臣佐使說)은 유학적 패러다임에서 나온 말이다. 또 후세방은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 방풍통성산(防風通聖散) 자음강화탕(滋陰降火湯)과 같은 이법방약의 근거상이 담겨있음을 한눈에 알 수 있다.^{69,77,78)}

황제내경의 치법원리 중 「虛則其補母, 實則其子瀉」는 그 장이 허하면 그 어미를 보하고 그 장이 실하면 그 자식을 사하라는 것과 인경보사설(引經補瀉說)을 적용하였다. 이것은 “허하면 보하고 실하면 사하라”는 직접적 정체개념에 오행상생상극의 실을 도입한 것이다. 이러한 도입은 천동설에 의한 항성의 운명지정설인 패러다임의 도입에서 나왔다. 방제의 규칙도 군신좌사설(君臣佐使說)은 유학적 패러다임에서 나온 말이고 청룡탕 진무탕 백호탕 주작탕은 신화적 이름이며 사군자탕 육군자탕(六君子湯)은 도가적 이름이다. 후세방은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 방풍통성산(防風通聖散) 자음강화탕(滋陰降火湯)과 같이 제작자의 처방사상이 담긴 것으로 이름에서 그 효능을 알 수 있도록 한 처방명이다. 여기서 고향은 대체로 계지탕 마황탕과 같이 약물명이다.^{69,77,78)}

상한론(傷寒論)

본 논문에서 말하는 『상한론(傷寒論)』은 『상한론(傷寒論)』과 『금궤요략(金匱要略)』 두 권을 합친 『상한잡병론(傷寒雜病論)』을 뜻한다.^{80,81)} 저자의 모교 교수이셨던 고고병선 박사는 이 책은 질병과 인체의 투병에 대한 주도면밀한 관찰을 바탕으로 과학적 체계를 가진 약물학(藥物學) 서적이라고 소개하였다.⁸²⁾ 그러나 이 책이 가진 몇 가지 해결해야 할 난제는 상한(傷寒), 육경(六經), 편집과 정리에 관한 삼대 논쟁점이라 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난제는 아직도 합의된 정설이 없다.^{83,84)} 논자가 상한론이라 하는 뜻은 상한의 훈고(訓誥)인 비폭(非曝: unsolar)의 뜻을 부각시키기 위함이고 태양이 없다면 그것이 곧 죽음이라는 보편적인 뜻에서 상한이라는 용어가 탄생된 것이라고 유추 할 수 있었다.^{3,9)} 그래서 고증학자들이 주장하는 상한은 모든 질병을 뜻하는 훈고인데 후세학자들이 열성질환이라 해석함으로써 와전을 일으키게 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 또 육경은 음양론을 되맞춤한 고대 변증법임을 알게 되었다. 결국 이 책의 논쟁점은 모두 태양을 모델로 하였음을 알게 되고 이것은 바로 현대과학의 근거이기도 함으로 저자의 『동서의약학의 통섭론』이 성립될 수 있었다.¹⁰⁾ 이 책은 발열성 질병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닌데 송대(宋代)의 신 유학자들이 열병인

외감(外感) 치료법이라 해석하고 있었다. 프랑스를 위시한 유럽에는 장티브스 치료법으로 와전시켰다.⁸⁵⁾

1. 상한론(傷寒論)의 연역 및 개괄

개국가의 약사들이 애용해 왔던 상한론 주해서(傷寒論註解書)로는 박성수의 현대한방강좌, 오즈카의 상한론해설, 요시마쓰도도 저/ 용야일웅 해석의 유취방강의, 유노모도의 황한의학, 고(故) 이승길의 유고집인 이도상한론강좌 및 김창민 외 14인이 편저한 상한론강의 등이 있다.^{77,83-89)}

a. 저자와 저술시기

상한론은 동한 말년인 AD 200-210년 장사의 태수 장중경이 저술한 것으로 전란으로 소실되고, 진(晉)의 왕숙화(王叔和)가 원서(原書) 중 상한에 관한 부분만 정리하여 책으로 만들어 그 이름을 상한론이라 한 것이 오늘날까지 전해진다. 이 책은 그 후 비밀스럽게 취급되었던 것으로 당대의 손사막(孫思邈)이 천금요방(千金要方)에 “강남의 유명한 들이 중경방(仲景方)을 숨기고 보여주지 않았다.”고 하였고, 만년의 손사막이 이 책을 구입하여 『천금익방(千金翼方)』 9권에 수록함으로써 오늘날 그 전모를 볼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오래된 상한론이라고 한다. 상한론에 대한 국가적 사업은 송대(宋代)에 이르러서야 임억(林億) 등이 신교정한 전서(全書) 10권으로 397 조문으로 하고 중복된 것과 완전하지 못한 것을 제외한 112방 만 수록하였다. 현재는 전해지는 원서에는 성무기의 성주본(成注本)과 송판본을 복사한 조개미의 조각본(趙刻本)이 있다. 오늘날 중국의 위생부(衛生部)는 상한론(傷寒論)을 중의학부(中醫學部)의 주된 교과목으로 지정하고, 상한론강의(傷寒論講義)를 편찬하고 연구하는 것을 사대현대화(四大現代化)에 기여하는 것이라 인정할 정도로 귀하게 여겨지고 있는 책이다.⁹⁰⁾ 저자는 고 이도상한론강좌(以導傷寒論講座)의 유고집을 편찬할 시에 이 책의 서두 해설 편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상한론은 약물요법으로는 가장 오래된 고전으로 임상에 적용해 본 수 많은 치료자들에 의하여 그 효과에 대한 감탄과 찬사를 아끼지 않는 고대과학서(古代科學書)이다. 역대로 수많은 명의들은 상한론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저술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성작이라고 평가한다. 이 책은 2000년이란 긴 역사를 가진 고전(古典)으로서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문제점들이 남아 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상한론의 주해서(註解書)로서는 상한론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운기론적(運氣論的) 해석법, 경락학적(經絡學的) 해석법, 강평본(康平本)식 해석법 등으로 나누어진다. 그래서 중국은 장부경락학적 해석을 위주로 하지만 일본에서는 강평본(康平本)에 의한 교육을 주로 해왔다. 이렇게 권위 있는 주해석(註解釋)서가 기본사상을 달리하고 있는 문제점 때문에 초학자들이 쉽게 학문에 접할 수가 없다. 이에 고 이승길(李承吉) 선생은 현대약학을 공부한 약사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강평본에 의한 상한론 해석을 위주로 하여 현대의

약학과 융합시키고자 하였다. 이 방법은 또 한의사들이 주로 사용하던 전통한의학(傳統韓醫學)과도 차별이 될 수 있으므로 두 단계간의 해묵은 갈등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⁹¹⁾ 이러한 고인의 약사한방교육관점에 대하여 일각에서는 음양오행설과 장부경락설(臟腑經絡說)을 뺀 한의약학(韓醫藥學)은 생각할 수조차 없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어서 상호간의 학문적 갈등을 피할 수 없었다.” 약사한약교육의 배경을 설명 하였다.⁸⁹⁾

b. 상한론(傷寒論)연구업적에 대한 개괄

일본은 1700년 요시마쓰도도(吉益東洞)에 의하여 내경제의학(內經係醫學)을 국법으로 배척한다. 그는 사변적형이상학적 음양오행학설은 공리공론이므로 오직 상한론만을 의학으로 인정하였던 것이다. 일본의 이러한 사상은 일본의 근대화와 함께 쉽게 동서의료의 일원화법을 시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대의사인 탕본구진은 고방일변도인 반면에 오즈카는 질충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1,86)} 일본의 전통의학연구자들은 신교정한 송본 상한론과 송이전의 강평본과의 비교연구를 하고 그 진의를 찾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연구태도에 대하여 중국과 한국의 학자들은 오히려 일본식 고방이라고 비하시키기도 했다. 『상한론』에서 음양설마저도 부정하게 되는데, 그 결과 삼음삼양병인 육경(六經)병 명칭의 뜻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역대 일본학자들은 많은 연구논문을 내어 놓았지만 일본의 고방일변도의 분위기는 황제내경과 본초경(本草經)을 무시하고 있어서인지 오즈카게이사즈(大塚敬節)가 531편의 논문을 탐구하고도 『상한론』을 도저히 알 수 없는 수수께끼 학문이라 결론 내린 것이 아닌가 한다.¹⁾ 또 이 책의 편집정리에 대한 경향을 보면, 일본학자들의 편집경향은 요시마쓰도도(吉益東洞)의 유취방강의는 탕증별로 정리하였고 황한학과 오즈카의 상한론해설은 육경병증으로 정리하였다. 이와 같이 상한론의 편집과 정리에 대한 논쟁도 심하여서 명칭 이후 해결되지 못했다. 이것은 중국의학사를 살펴보면 상한론은 탕액론과 육경병리론이 융합되었을 것으로 유추할 수가 있어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다. 그러나 최근에 발표된 전병훈외 2인의 “상한론 육경개념에 대하여”란 연구논문에서 육경을 분류 개념이라는 것을 정설로 받아들이는 추세에 있었다.⁹²⁾ 논자는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게 되는 이유는 “육경은 태양을 모델로 한 표리를 변증하기위한 고대자연과학의 변증법”으로 이집트의 신성문자를 알게한 “로제타스톤”과 같은 지위로 보기 때문이다.¹⁰⁾ 예컨대 일본학자들이 음양사상을 부정한 결과 태양병을 대양병(太陽病), 태음병을 대음병(大陰病)으로 교정한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편집과 정리에 대한 것을 임상경험에 비추어 보면 계지탕증, 마황탕증의 정리는 청대의 복고주의 학파인 가금과 서영태의 주장으로 각 탕증을 쉽게 습득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 반면 송본의 육경

병정리는 질병의 예후판단에 더욱 편리함을 알 수가 있었다.

c. 상한론의 모델은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생태계의 현상

① 상한(傷寒)은 비폭(非曝)

상한론의 일원론적 체계는 일본의 요시마스도도의 만병일독설(萬病一毒說)에서 논증될 수 있다. 상한론이 탕액론과 육경병리론이 융합된 것이라 한 것은 책의 편집과 내용에서 알 수가 있다. 송인들이 상한을 외감성 열병이라 본 것은 황제내경의 열론과 병인론인 육기에 의거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송인들의 신교정에 의의를 제기한 것은 명의 방유집을 비롯하여 청의 유근초(兪根初) 등으로 그들은 상한이 만병이라고 주장하였다.⁹³⁾ 그러나 상한론 전본에는 중풍과 상한을 구별하는 조문이 별도로 삽입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내용과 상반된다. 그래서 현재는 상한(傷寒)이란 전문용어는 광의와 협의로 문장의 앞뒤를 보아 해석하고 있다.

상한의 훈고(訓)는 전국시대(戰國時代)의 맹자(孟子 BC 321)의 「고자편(告者篇) 중 이국문답(利國問答)편」에 의하면 “맹자가 제(齊)나라의 선왕(宣王)에게 연(燕)나라를 치지 말 것을 간청하였지만, 선왕(宣王)은 맹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연(燕)나라와 전쟁을 벌여 손해를 입었다. 이에 맹자의 제자(弟子)들이 맹자가 선왕을 설득하지 못했음을 힐책하자 변명한 말을 한 것이 ‘오퇴이한지자지의 일폭십한야 : 吾退而寒之者至矣, 一曝十寒也’라 하였다. 즉 일폭십한이란 맹자가 곧 한(寒)의 무리들이 곧 왕에게 다가와서 내가 한번 정의를 말하였지만 열 번의 옳지 못한 말을 들은 왕이 전쟁을 치고 만 것이라는 것이다.⁵⁴⁾ 여기서 폭(曝)과 한(寒)이 대비되는 용어로 쓰였음을 알 수 있고 그 어원은 태양이 삶의 주된 근거라는 기본사상에서 나온 것이라 유추할 수 있었다. 그래서 상한(傷寒)이란 질병이라는 뜻으로 통용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즉 상한론(傷寒論)이란 질병전반에 대하여 논(論)한 책으로 보아야만 비로소 책의 내용과 부합될 수가 있다. 그러나 황제내경은 상한(傷寒)은 겨울(winter)에 나타나는 차가운 기운으로 생각하였다. 한(寒)이란 Cool 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곳에서 오류(誤謬)를 범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오류는 육경명칭이 삼음삼양인데 이법이 역력과 운기 경락에서 사용되므로 상한론의 이론이 이것으로부터 발생하였다고 보았던 것이다. 육경은 음양론에서 유래된 것으로 운기와 경락에서 유래된 것이 아니다. 상한론의 내용이 매우 보편적인 논술이어서 지금의 세포학설과 유전학설에 의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상한론은 각 시대의 패러다임에 의하여 충분히 응용되어 질 수 있고 황제내경의 경락학과 운기론이 근거가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오직 상한론은 고대의 탕액론과 육경병리론이 융합된 것이므로 탕액론

으로 편집하여도 훌륭히 쓰이고 육경병리론으로 편집하여도 훌륭하게 쓰이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본다. 이 책의 상한(傷寒)은 오랫동안 와전되어 그 가치가 외부로 알려지지 않게 된 것이다. 동의보감에서도 역시 이렇게 오해하였음이 드러난다.

② 육경(六經)은 고대의 국법

동양의약학에 있어서의 육경(六經)은 고대과학의 변증법으로 이집트의 신성문자의 비밀을 벗겨낸 “로제타스톤”과 같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육경(六經)이란 뜻은 고대의 육법이 해당한다. 즉 경(經)이란 상도(常道) 즉 유(由)라 하여 일상적인 법(法)을 뜻하는 말이다. 육법은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슈메르 인도의 바이세큐학과에서 사용한 기본수가 육(六)인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본다.^{38,95)}

전국시대 장자(莊子; BC369~BC286)는 인체를 오장육부 대신 육장육부(六臟六腑)로 하고 육부(六府) 또는 육합(六合)이라는 말로서 변증을 즐겨하였다. 중국의학사에 의하면 육부(六府)의 용어의 어원은 하우(夏禹)시대에 육부(六府)가 매우 잘 다스려 졌다는 말에서 하(夏)대의 도시부락을 구획한 법일 수도 있고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생필품일 수도 있다. 그런데 후에 육부(六府)란 오행인 수 화 목 금 토와 곡(穀)을 합하여 칭한 것이라고 정의를 내린 경우도 들고 있다.¹¹⁾ 주역(周易) ¹⁰단전상하괘(象蒙上下卦)의 6괘의 상(象)과도 관련이 될 것으로 추측된다. 주역의 육효점(六爻占)은 인간의 길흉화복(吉凶禍福)을 놀랍도록 많은 경우의 추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64개 상(象)에만 효사(爻辭)를 붙이고 십익이라 하였다.

이것과 비교되는 장자(莊子)의 「제물론(齊物論)」을 보면 “도(道)란 너무 광대무변한 진리이므로 언어로서는 다 표현할 수가 없으므로 육합(六合) 밖은 성인이 인정하면서도 논하지 않고 육합(六合)안은 성인이 논(論)하면서도 토의하지 않는 것이다.”고 하였는데 이는 성인이 육합(六合)이외의 형이상(形而上)의 문제를 말로 하지 않으며 형이하(形而下)인 문제만이 육합으로 논하는데 그것은 시종(始終) 대소(大小) 유무(有無)에 관한 것이라고 하였다.⁴⁷⁾

BC 249년 『여씨춘추(呂氏春秋)』는 팔람(八覽) 육론(六論) 십이기(十二紀)로 구성된 이십여 만자의 글씨로 편찬하였는데 천지만물고금의 일을 모두 망라한 것이라고 하였다. 한사기(漢史記)에 진(秦)의 효공(孝公)은 BC 350년에 위(魏)를 항복시키고 도량형을 통일시키고 치춤 대통일의 기반을 굳히기 시작했다. BC 221년 시 황제에 이르러 중국의 대통일을 완성하고 1년의 시작 및 그 축하의식을 10월 1일로 바꾸었고 숫자는 육(六)을 기본수로 설정하였다. 그래서 부절(符節)과 공식 관(冠)은 모두 6촌으로 수레의 넓이는 6척

⁹⁾육합밖이란 형이상학적인 사항을 말하고 육합 안은 형이하학적인 것에 대하여 대소 시종 유무를 구별할 수 있는 일.

¹⁰⁾단전상하괘: 역경은 암시이다. 8괘는 자연현상을 주체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이것을 상하로 붙여서 특수한 현상을 표현하는 방법을 썼다. 즉 6위(位)로서 놀랍도록 많은 해석을 할 수 있었다.

(尺)으로, 육척을 일보(一步)로 황제의 수레는 여섯 마리의 말이 끌 것을 각각 규정하고 황하를 덕수(德水)로 개칭하였다. 또한 5척의 순환에 의하여 왕조가 교체된다는 오덕중시편에 의거하여 화덕(火德)인 주(周)를 대체한 진(秦)이므로 수덕(水德)의 시대가 도래하였다고 하였다. 그래서 의복과 깃발 휘장은 모두 흑색을 지정하고 봉선의식(封禪儀式)도 거행하였다. 또 한(漢)의 태사공사마담(太史公司馬談)은 『육가요지(六家要旨)』라 하여 음양 유 묵 명 법 도덕가(陰陽儒墨名法道德家)라고 하였는데, 반고(班固)의 한서예문지(漢書藝文志)는 육가(六家)를 육경(六經)이라 하여 역경(易經)을 추가했다.⁴⁶⁾ 황제내경에서도 경락에는 육경을 외인에는 육기를 사용하고 도교에서 사용했던 수화국곽도(水火國廓圖)는 동양(動陽)을 하나 더 넣어서 육(六)이었다. 하도(河圖)인 상수학(常數學)에서는 1과 6은 수(水)이다.

③ 삼음삼양병(三陰三陽病)

상한론의 육경(六經)은 삼음삼양병인 태양병 양명병 소양병 태음병 소음병 궤음병이 육병이다. 이 중에서 양명(陽明)병과 궤음(厥陰)병의 근거에 대하여 학자들은 각가지 해석을 하고 있다. 양명(陽明)이란 태양의 ¹¹빅뱅(big bang)과 같고, 궤음(厥陰)이란 ¹²블랙홀(black hole)과 비유할 수 없다.^{96,97)} 송학은 이 두 가지 명칭을 없애고 태양 소양 태음 소음의 사단(四端)으로만 정립하는 것을 주역 맹자 송의 수철학 그리고 사상의약학으로 볼 수 있다. 최근에 발표된 『상한론의 육경개념에 대하여』의 논문은 “육경이란 ① 경락설 ② 장부설 ③ 형층설 ④ 육구지면설 ⑤ 단계설 ⑥ 음양설 ⑦ 팔강설 ⑧ 기화설 ⑨ 증후군설 ⑩ 종합설이 있다. 상한론의 육경은 장중경이 내경의 소문(素問) 열론(熱論)에 나타나는 육경이론을 근거로 하여 확충 발전시킨 것으로서 후세의가들이 그 의미를 다양하게 발전시켰다. -중략 육경은 하나의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한 분류개념이다.”고 하였다.⁹²⁾

삼음삼양병인 육경변증은 표리변증으로서 노자의 변증론을 표와 이에 되맞춘 변증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한 의학의 진단의 특징인 병응대표 원칙을 실천할 수 있어서 아커크내히트가 말한 질병현상의 암시적 현상을 과학으로 정리하는 변증도 된다. 이것의 근거는 태양을 모델로 한 음양일원론에서 유래된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

d. 상한론의 임상실제

① 주해서의 차이

청대의 복고주의 의가(醫家)들은 육경병(六經病)의 근거에 대하여 논쟁하였다. 그래서 육기(六氣)에 근거를 둔 성무기(成戊己)본의 주해서가 있고⁹⁸⁾ 경락(經絡)의 근거를 둔 주평의 남양활인서(南陽活人書)가 있는데 장부경락학을 응용할 경우 수경(手經)은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청대의 서대춘(徐大椿), 가금(柯琴, 일본의 유시마쓰도오도, 이승길은 계지탕증, 마황탕증 등과 같이 오로지 약물로서만 정리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양한방 통합의사인 유노모도구신(湯本求真)과 오즈카게 이사스는 (大塚敬節)는 육경변증으로 편집 정리하였다. 상한론은 탕액론과 병리론이 융합된 것이기 때문에 약학적 견지에서는 전자가 편리하고, 의학적 견지에서는 후자가 편리하다.

② 논술의 비결

『상한론(傷寒論)』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지만 700여자의 한자와 730여 조문의 간결함으로 임상가들은 한번 손에 들면 놓을 수 없을 만큼 흥미롭게 논술되어 있다. 이러한 훌륭한 논술과 훌륭한 치료효과를 이루어 내는 비결을 정리해보면

첫째, 보편타당한 과학이론을 근거로 매우 간결하게 기술하였다. 즉 육경병증은 질병에 대한 신체의 저항기를 삼양병(三陽病)에 신체의 쇠퇴기를 삼음병(三陰病)에 두었다. 삼양병은 다시 태양병, 양명병, 소양병으로, 삼음병은 다시 태음병, 소음병, 궤음병으로 6가지 유형으로 정리하였다. 증상에 따라서 분류하여 각각 구별되는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없는 특징만을 발췌하여 정의(定義)를 세웠다.

둘째, 각 병증에서 과생하는 경우도 3-8자로 매우 간략하면서도 넓은 범위의 상태를 함축하여 표현하였다. 셋째, 병위는 표리반외반리(表裏半外半裏), 상중하(上中下) 등의 보편타당한 위치로서 장부와 같이 해부하지 않고도 추리되는 모든 구조에서 가능하다. 그러므로 세포단위에서는 막(membrane)인 반표반리를 기준으로 막내외의 활동으로 적용하는 설명이 가능하다. 넷째, 인체의 체온의 표현인 한열(寒熱)에 대한 설명 메커니즘은 현대의약학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범위한 현상을 포괄 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염증을 일으키는 현상을 미생물로만 보는 것과는 달리 세포들의 운동에 의한 것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다. 다섯째, 병리와 생리는 기혈수(氣血水)라는 세 가지의 상호관계를 파악하는 일이다. 기혈수의 근거는 물질과 에너지라는 역학관계에 있다. 여섯째, 육경병 정의에 의거한 치법은 발한사하 공격법(攻擊法)을 쓰고 반표반리는 화법을 사용한다. 또 허약하고 부족할 때에는 온보법(溫補法)을 사용하되 이러한 원칙을 환자의 주소(主訴) 복부 맥상 분비물의 상태 등을 파악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지시되어 종합 판단하도록 기술되어 있다. 일곱째, 조문의 지시에 의한 치료효과는 각 조문의 말미에 표기해 두었다. 즉 증상군과 약물군에 의한 처방이 100% 부합되어 오차가 생길 염려가 없을 때에는 주지(主之)라 하였고 만약에 주의를 요하는 분별이 필요하면

^{11,12}현대물리과학에서는 빅뱅은 우주를 탄생시킨 원동력으로 태양도 이것에 의하여 형성되었고, 블랙홀이란 중력이 강하여 빛이 빠져나올 수가 없어서 관찰이 불가능하지만 존재하고 있어서 쉽게 나타나는 별이라고 한다. 동양인이 생각한 궤음은 음력(陰力)에 빠지고 그것은 양의 씨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Table III. 삼대원전의 비교 분석표 : 태양론

書名	黃帝內經 素問, 靈樞(經絡學), 運氣大論	傷寒雜病論 傷寒論, 金要略	本草經
1 生理論	精, 氣, 神 說,	氣血水說	四氣五味說
2 生老病死의 근거	天, 地, 日, 月, 木, 火, 土, 金, 水,	太陽力而氣	太陽力而氣
3 病因	六氣, 七情, 勞役, 飲食	傷寒(非曝)	氣的 보충과 생성이 목적
4 病位	五臟六腑: 五行配當表	表, 裏, 半外半裏,	乘降浮沈 上下 歸經, 臟腑五入
5 病情	寒熱論, 藏象論	寒熱虛實, 證候群	藥物群
6 診斷根據	病應代表(병응대표)론: 四診法 : 三部九候脈.	病應代表: 四診法(腹診)	오행배당표
7 변증법	오장육부 음양오행론 三陰三陽 경락 명칭,	음양론 : 氣血水辨證 三陰三陽病 辨證	寒熱論
8 치법원칙	五行相生相剋補瀉	치법오칙(汗土和下溫)	四氣五味 乘降浮沈
9 방제원칙	君臣佐使說	隨證治之	
10 변증론	多元論	一元說	
11 과학철학	易經과 道德經	易經, 道德經	

의(宜)라하였으며 다른 방법이 없으므로 이 방법 밖에 없지만 확실히 보장되지 않을 때는 여(興)라 하였다. 여덟째, 이 책에서 논술된 조문 730 여 가지 중에서 1/3은 오치(誤治)에 해당하는 대비책이다. 이는 오치하기 쉬운 경우와 오치(誤治)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예방하는 논술이다.⁹⁹⁾ 따라서 질병의 예후는 충분히 판단가능하다. 서양 의학에서도 19세기 초에 까지 상한론의 한토하(汗土下)법을 써왔음을 알 수가 있는데 그 방법에서 매우 정교하지 못하여 비교되는 일이다.¹⁰⁰⁾

삼대원전(三大原典)의 비교분석 결과

1. 삼대원전의 기초학설 비교

Table III에 요약된 삼대원전을 비교분석해 보면 생명과학의 원리는 태양을 모델로 한 음양일원론(陰陽一元論)으로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음양설은 한열(寒熱) 표리(表裏) 허실(虛實)이라는 상반된 구조 및 성질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자연현상을 관찰하고 경험한 것을 정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모든 자연만물은 기(氣)라는 미시적 물질로서 이루어졌으며 이 미시적 물질이 곧 운행 하는 힘의 원천임을 인식하였기에 기를 근거로 그들이 경험한 모든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또 ¹³장자의 물화론은 무기화학에서 유기화학적 실체로 변한다는 과학이론을 구체적으로 정립하여 오늘날의 광합성작용으로 설명되는 메커니즘을 함축하고 있다. 이것은 조선의 최한기가

주장한 기학(氣學)에서 볼 때 동양과학철학인 역경과 도덕경에서의 일원론적 통일성을 인식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다.

2. 전거(典據)

a. 태양은 고대의 과학적 인식의 근거

년대기 학자들에 의하면 이집트에서는 BC 4241년부터 날 짜를 기록하였고 율리우스의 태양력에서 365 1/4로 한 것 보다 2000년 전에 이미 11분 24초의 오차인 태양력을 쓰고 있었다고 한다. 이집트는 태음력을 쓰다가 태양력으로 바꿨다. 슈메르인들은 태음태양력을 썼다고 한다.³⁸⁾ 태양의 그림자는 길이를 재는 것은 수학의 기초가 되고 피라미드나 멕시코의 마추피추의 공중도시를 짓는 건축술의 기초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즉 고대인들은 태양의 관찰에서 과학을 구현하였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래서 태양은 생명의 필수조건이어서 태양신(神)으로 숭배하게 되었다. 태양신화는 나라마다 달라서 그 나라의 사고방식을 유추할 수도 있다. 우리민족의 태양신화는 만주의 개이지족으로부터 비롯하였고, 중국의 태양신화는 은(殷)민족과 동남방에서 태양신화가 전해졌다고 한다. “태양과 세발까마귀”의 문양과 “부상수(扶桑樹)와 회화”인데 그 내용은 “옛날 요임금 시대 어느 날 하늘에 열개의 태양이 한꺼번에 나타나서 엄청난 재앙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고, 태양 속에 있는 흑점이 세발까마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장사(長沙) 마왕퇴(馬王堆)에서 발굴된 한대(漢代)의 관리 이씨 부인의

¹³장자의 지북유(知北遊)에 의하면 “人之生 氣之聚也 聚則爲生 散則爲死”라 하였다. 또 한대의 회남자는 “공허한 가운데 우주가 생기고 우주는 기를 만든다”고 하였다. 이로서 기는 우주만물의 기초물질로 가설되었다.

소품자수에서도 이 내용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

b. 노자(老子)의 관념철학

노자(老子)의 도덕경 1장 25장 상원(象元) 제40장 거용(去用) 제42장 도화(道化)의 40장과 42장은 자연만물의 대립과 복귀의 이치로서 변증론을 정립하였다. 이것은 과학이 그리스의 제논(Zenon BC 409-430)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헤겔로 이어졌다면 동양은 주역 역에서 시작하여 노자(BC 565~?)와 음양가에서 『상한론』에 이어졌다.⁴⁻¹⁰⁾

노자는 1장 체도(體道)에서 인식은 도(道)라는 일원론(一元論)을 확립하였다. 도(道)란 “현지우현(玄之于玄)으로 너무나 깊고 아득하여 볼 수도 없고(夷) 들을 수도 없고(希) 만질 수도 없는 것(微)으로 이 삼자는 서로 분리할 수도 없는 혼돈한 하나의 체(體)를 이루고 있으며 말로써 표현할 길이 없다. 도(道)는 인식을 초월한 실재로서 인간들에게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로이다. 그러나 도의 작용으로 만물이 생성 변화 발전 운행한다. 따라서 도의 작용은 있다. 그러므로 형이상적인 도의 본체는 무(無)지만 형이하적으로 나타난 도의 작용은 유(有)라 했던 것이다. 즉 무형(無形)인 이성은 유형(有形)인 도용으로 나타난다고 말함으로써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을 일치시켰다. 무(無)는 영(0; nothing)이 아니고 무한한 잠재력을 말한다. 이로서 현상세계에 나타난 것만을 가지고 말할 수는 없다. 도(道)의 형이상은 절대적이고 영원하지만 형이하적인 모든 가치나 현상은 상대적이고 변동한다고 하였다. 제 42장 도화(道化)에서 “道生一이요, 一生二요, 二生三이며, 三生萬物이다.”고 만물생성과 소멸의 이치를 설명하였다. 도에서 하나의 기(氣)가 나오고, 그 하나인 기가 다시 둘로 나누어져서 음과 양이 생기고 음과 양이 조화됨으로서 세번째인 화합체가 생기고 세번째 화합이 곧 만물이다. 《열자(列子)》는 이것을 황제내경에서 인용하였다. 송의 유학자 주돈이(周敦頤 AD 1017-1073 년)는 “노자는 道란 태극과 같은 것이라지만 너무 커서 오히려 끝이 없다. 그래서 무극(無極)이라 함이 옳다.” 라고 말하고 무극(無極)으로 시작하는 음양오행도해(陰陽五行圖解)를 그렸었는데 이것은 후에 태극도(太極圖)로 수정되어 유학에서 만유의 법칙이 되었다. 노자가 말한 도(道)에는 인간의 인식(認識)이 미치지 못하는 절대적 도리(道理)를 장자는 오관을 통해서 터득할 수 있는 인식(認識)이전의 세계라고 하였다. 그 다음 단계의 도(道)에서 인식의 세계로 온다. 이것을 一로 말하고 정(正)이라 하였다. 다음 二는 그것에 반대되는 생각으로 분(分)이고 반(反)이라 하였다. 다음 三은 합(合)이라 하였는데 이것은 조화 또는 충화와 통일된 이(理)의 개념이었다. 다음 노자는 만물(萬物)은 부음이포양(負陰而抱陽)하고 충기이위화(沖氣以爲和)라고 하였다. 부(負)는 업다, 포(抱)는 끌어안는 것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충(沖)은 mix 의

뜻으로서 음과 양의 기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화합되어 있다는 뜻이다. 제25장 상원(象元)과 제40장 거용(巨用)에서 변증론(辨證論)을 확립시켰다. 노자의 반(反)에는 세가지 뜻으로 설명되는 데 즉 반(返) 즉 복귀의 뜻과 상반되는 운동을 한다는 뜻과 정반대로 변화한다는 화성(化成)의 뜻이다. 25 장은 “도(道)는 너무 크기 때문에 뺏어나가고 나가면 멀어지고 멀어지면 결국 되돌아온다.”고 했다. 제40장 거용(去用)에서 ‘반자도지동(反者道之動)’이라하여 만물은 상반되는 방향으로 운동했다가 결국에는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 오며 이를 되풀이하는 것으로 대립과 복귀의 현상을 설명하였다.⁴⁷⁾ 노자의 직감적 논리는 그리스 체계의 인식론인 소크라테스(BC469~399) → 플라톤(BC 427~355) → 아리스토텔레스(BC384~322) 보다 앞섰으며 자연관찰에 대한 논리적 설명은 더욱 정확하였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1724~1804년)는 아리스토텔레스 이래로 논리학이 한걸음의 발전도 후퇴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논리체계는 인간이 타인과 합의할 수 있는 가장 기초단위로서 학문의 변증으로서도 이 이상은 아직까지 없다는 뜻이다. 오늘날 모든 학문은 여기에 기초를 두었고 이것을 과학이라고 한다. 한편 서양철학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을 검토하면서 그와 다른 형태인 유학자들이 구성한 주역(周易)과 같이 이원론으로 추리해 간 트리구조식 형태의 전개는 도식적으로 무한의 추리가 가능하다. 주역의 심의는 64개로 하였지만 그중 서양철학사에서는 54개의 추리형태를 가지고 실험 해본 결과 19 개의 증례만이 실증되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서양은 이러한 변증방법은 폐기하였다고 한다. 노자(老子)는 논리의 근거인 변증론을 확립하였지만 육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였는지 조사하지 못했다. 다만 삼대원전의 비교를 통하여 황제내경은 일원론에서 이원론으로 상한잡병론은 일원론으로 체계를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음양일원론만이 과학으로 정립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c. 삼대원전의 이론변천

상한(傷寒) 易(역) 기(氣) 육경(六經)으로 놓고 볼 때 황제내경은 고대인들의 모든 생각들이 담겨 있다. 그렇다면 왕관학(王官學)의 후예들이 이것을 변천시켜 왔다. 위(魏)대의 천재 왕필(王弼 AD 226~249)은 “한(漢)의 태사공사마담(太史公司馬談)의 『육가지요지(六家要旨)』는 음양 유 묵 명 법 도덕가에서 방법은 다르지만 궁극에서는 일치한다. 한서예문지(漢書藝文志)에서 제자구가(諸子九家)는 모두 육경(六經)에 근원을 두었고 육경은 모두 주대(周代)의 관학(官學) 즉 관자(AD 650년 管子)에서 유래했다.”고 하였다.¹³⁾ 고형(高亨)은 “『역(易)』은 구체적 사물로 추상적 이치를 표현하고 노자(老子)는 추상적 이치로 구체적 사물을 개괄하였는데 전자는 취상(聚象)이라하고 후자를 담현(談玄)이라 부른다. 취상은 연역할 때 쓰고 담현은 귀납에서 나왔다. 역경

¹³⁾ 高亨, 『周易古經今注』(북경: 中華書局 50쪽.)⁶²⁾

이 씌어진 고대에는 추상개념이 적고 문장의 술어도 많지 않았으므로 역에 취상한 말이 많았을 것이다.”고 하였다.⁶²⁾ 한대(漢代) 이후 유가와 도가는 서로를 이단(異端)으로 여겼기 때문에 역(易)과 노자(老子)를 대립시켜 놓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양자가 어떻게 관련되어 왔는가에 대하여 연구하여야 한다. 도가(道家)는 사관(史官)에서 나와 성패(成敗) 존망(存亡) 복화(福禍) 고금의 도(道)를 기술하였다. 그리고 근본을 중히 하고 청빈하고 자신을 낮추는 요(堯)임금의 겸손한 처세술을 따르고 있는데 이것은 주역의 겸괘(謙卦) 사상과 일치한다. 한서예문지에 따르면 사도와 사관(史官)의 직분은 다르지만 국가의 정치를 하는 것은 같고 도가의 용의 극양사상과 역의 겸사상이 서로 상통하므로 유가와 도가는 결국 서로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이 제자백가가 모두 주대의 관학(官學)에서 비롯되었다는 논설을 믿지 않은 쪽도 있다.¹⁴⁾ 풍우관은 한서예문지의 말을 다 믿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춘추전국시대에 귀족정치가 붕괴하여 사(史)의 지식이 민간으로 전달된 것을 감안해 볼 때 역사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⁶²⁾ 고대에는 무(巫)와 사(史)가 나뉘어있지 않았으나 차츰 그 직능이 분리되고, 사(史)는 주로 천문(天文) 역법(曆法) 축사(祭祀) 점복(占卜) 상서(祥瑞) 재이(災異) 등과 같은 천관의 직능을 맡았지만 여전히 무술의 색채를 띄고 있었다. 그러나 사(史)를 넓은 의미의 관학으로 지칭하는 자도 있다. 이와 같이 고대의 육예(六藝)는 다 고대왕실에 특별히 설치된 사(史)가 관장 했으므로 육예를 왕관학(王官學)이라 불렀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중국초기의 사관(史官)은 원시 종교문화의 지식을 담당했던 이들이었으므로 당시의 철학 사학 문학 과학을 총괄한 박물지의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직책의 핵심은 천신(天神)의 뜻을 전달하는 것으로 종교 신학의 각도에서 현실 정치에 임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초창기 중국학문이 성립되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그러므로 주역(周易)과 주(周)의 도서관장이었던 노자(老子)의 상관관계는 현학의 기초이자 하나의 철학적 원리로 노역(老易)을 통합시켜 설명하고자 하는 왕필(王弼)의 사상적 바탕이기도 하다.

음양설의 응용 예로서, 수화교제설(水火交際說)은 수승화강설(水升火降說)이라고도 하는 것으로, 한(漢)대의 순상(荀爽)이 역(易)을 풀이하기 위한 이론으로 사용하였다. 이것은 만물은 수와 화의 교제로 이루어진다. 즉 물의 본성은 아래로 흐르지만 생명에서 이용가치는 위로 뿜어져 올라가야 한다. 식물이 땅속에서 뿌리로부터 물을 끌어다가 나무줄기를 통하여 높은 가지의 잎 새 하나하나에 공급하므로 전체가 생명을 유지한다. 반면 화열(火熱)은 본성이 위로 뿜치지만 아래로 내려와서 대지나 생명에 내려 보내야 그 이용가치가 있다. 이 수승화강설(水昇火降說)을 인체생리에 적용하면 간

신정혈(肝腎精血)은 상승해야하고 심폐화기(心肺火氣)는 하강해야 한다. 만약 신수(腎水)의 상승이 느리고 심화(心火)가 하강하지 못하면 사람은 양(陽)이 남거나 음(陰)이 부족 되는 상태가 되어 질병으로 이행된다. 그러므로 이것을 잘 살피서 수화(水火)의 교제가 잘 되도록 약을 써야 한다. 이것을 질병치료의 대원칙으로 끌어온 사람은 1300년 원대(元代)의 주단계(朱丹溪)로서 자음강화설(滋陰降火說)로 이용하고 처방으로 자음강화탕(滋陰降火湯)이다.

결 론

이상의 동양의약학의 삼대원전의 비교분석에서 지금까지 베일에 가리어 있던 동양의약학의 생명과학원리는 태양의 자발적 에너지관리와 생명체의 자발적 에너지관리의 원리가 동일하다는 관점에 근거를 두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기(氣)가 유형무형의 만물에 공동된다는 인식은 철저하게 생명체를 자연의 일부가 변한 것이라는 데에 기인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곧 20세기 핵물리학에서 밝히고 있는 입자과학의 양자역학과 같은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동양의약학은 서양의약학과는 달리 물리역학에서 나타나는 자연현상을 관찰의 대상으로 삼은 질병진단과 치료법임을 알 수 있고 이것은 화학적 구조에 의한 현대의약학에서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을 임상을 통하여 경험하였다. 이에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 된다.

첫째, 기는 태양을 형성하는 기본 요소로서 태양은 이것으로 무한한 힘을 생산하여 만물에게 골고루 나누어준다. 기는 밖에는 대기(大氣)로 있고, 생명체에는 생기(生氣)로 있어서 체내의 혈수를 운반하고 만드는 모든 생리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가설되어 있다. 그리고 생기는 음식물의 섭취와 대기의 호흡으로 이루어져 계속 생산되어 진다. 이것이 방제학의 기혈수변증이다. 본초학에서는 자연만물은 대기와 태양의 기를 흡수하여 이루어지고 그 존재효과를 나타낸다. 그리고 인체에 들어가서 한열의 효과로 작용된다. 이것은 천연생약의 인체반응을 한열온량의 사기로 설명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다. 황제내경에서 체내의 정(精)은 기(氣)가 만드는 것이라 하였다. 자연의 대기는 바람을 일으키고 비를 내림과 자연운동을 주관함으로써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소멸하게 한다. 그래서 기는 기초물질이자 운동을 하는 힘이다. 이러한 기(氣)를 태양은 규칙적인 자전운동과 공전운동으로 밤과 낮을 만들어 냄으로써 음양이라는 상대성원리를 이룰 수가 있었다. 이는 곧 물질과 힘이라는 역학운동법칙으로 나타나는 변화의 상태를 설명하는데 전용할 수 있었다. 이것이 생리철인 물활론이고 기혈수론(氣血水論)이다. 다시 말하면 기혈수론이란 물활론이라는 확실한 자연 과학철학을 기초로 개발된 과학이

¹⁴⁾馮友蘭의 中國哲學史 補篇 (上海 商務印書館, 民國 24) 93-94쪽.⁶²⁾

론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황제내경의 열론 편에서 발열을 주관하는 것은 상한이라고 하였는데, 이때의 상한은 물리학법칙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일 월 목 화 토 금 수의 칠혹성의 순환이 만물의 고유성을 부여한다는 천동설은 근거가 없는 일이다. 과감히 폐기하여야 하는 학설이라고 본다. 삼대원전의 공통용어인 육경, 한열, 음양, 기, 역(易)이란 용어의 어원과 관자의 법의 모델이 모두 태양으로부터 비롯하였음을 알 수가 있었다.

셋째, 병인(病因)에 대하여서는 상한론은 만병일독설이다. 그것은 곧 태양과 기이다. 그러나 황제내경은 삼인학설(三因學說)이라는 외인 내인 불내외인을 만들었다. 내상 칠정(七情)이란 사람의 감정 상태인 희(喜) 노(怒) 우(憂) 사(思) 비(悲) 공(恐) 경(驚)을 말하고 감정조절이 안되면 질병이 된다고 하였다. 불내외인은 전쟁터에서 사고(事故)를 당하는 것과 같은 일이다. 상한론의 만병일독설은 상한은 해로운 뜻이 아니고 태양에너지란 뜻이다. 현재의 원전은 광의 상한이 모든 질병을 뜻하고 협의의 상한은 외감성 열성질환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전자는 훈고이고 후자는 황제내경의 육기에서 나온 병명인 한(寒, cold)이다. 인체를 구성하는 세포활동은 역학적 견지에서 관찰되어야 하므로 황제내경의 열론편은 수정되어야 한다.

넷째, 병위(病位). 상한론의 육경병(六經病) 변증은 오직 표(表) 리(裏) 반표반리(半表半裏)의 세가지를 사용하여 태양, 양명, 소양, 태음, 소음, 궤음의 여섯 가지로 정립하였다. 그 외 신체적 설명은 상 중 하 소복 흥 두부 사지 피부 땀구멍 등과 같은 일반적인 언어를 사용하였을 뿐 음양이라는 은유적인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황제내경의 병위는 오장을 음(陰), 육부를 양(陽)이라 표리관계를 맺고 다시 오장육부는 5 행으로 배당시키고 다시 부속기관도 각각 배당한 것은 경험적 확률에 의한 사변적 배당이다. 반드시 연관되는 것이 아님을 임상을 통하여 알 수 있었다.

다섯째, 병정(病情)이란 병리적 표현인데 황제내경은 한열허실과 기체(氣滯) 어혈(瘀血) 수독(水毒)이 육기에 의하여 구분되어진다. 예를 들면 풍담 한담 서담 습담 조담 화담 등이다. 인체의 각 기관은 서로 생(生)하는 기관과 극(剋)하는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여 오행배당표에 의거하여 그 관계를 찾아서 질병진단에 응용하였다. 또한 사람의 정서적인 7정(七情)은 희노우사비공경도 각각의 장기에서 생성되는 것이라하여 관찰대상으로 하였다. 이것은 장상학(臟象學)이론이 확대 해석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장상학은 병응대표 원칙에서 나왔지만 이것은 오직 물질과 운동법칙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물질은 에너지로 다 쓰고 남으면 열이 발생하는 생화학적 역학법칙이 이용될 가능성이 열어놓고 있다.

여섯째, 진단(診斷)은 상한론은 병응대표(病應代表)라는

보편적인 원칙으로 부터 논리를 이끌어 내었다. 환자의 한열(寒熱)모양, 환자의 호소, 분비배설물의 관찰, 혀 얼굴 배 등에서 평소와 달라진 모습을 관찰하여 종합된 증(證)을 결정한다. 송의 허숙미는 한열, 허실, 표리, 음양의 구별을 팔강변증(八綱辨證)으로 정립한 바 있다. 팔강변증 역시 오행배당표에 의한 상생상극에 의한 진단은 맞지 않는다.

일곱째, 치료원칙은 정체관념(整體觀念)이다. 실패하면 사하고 부족하면 보충함으로 전체적 상황을 판단하여 항상성을 유지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한열허실(寒熱虛實)에 대한 온량보사(溫涼補邪)의 법칙이 나온다. 상한론은 육경 변증법에 의한 汗吐和下溫인 오칙(五則)이다. 황제내경에서도 소문지진요대론(素問至眞要大論)에 의하면 “寒者熱之, 熱者寒之”하고 하였다. 그러나 오행상생상극설을 도입하여 “허즉기보모”하고 “실즉기자사”하라는 것은 운명이 지정된 것으로 오행배당표의 계산에 의하면 된다. 상한론에서는 이러한 사변적(思辨的)이론이 사용되지 않았다.

여덟째, 변증론의 특징은 음양론과 육경에 있다. 육경은 음양변증을 되맞춘한 삼음삼양변증이다. 이것은 역경의 육효사(六爻辭)와 같다. 고대 슈메르인의 육법과 같고, 이러한 변증법은 병응대표(病應對表)라는 또 다른 자연법칙을 논리적으로 기술하는 변증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태양은 속을 알 수 없는 것이어서 표에도 태양 양명 소양이라 변증하고 내부에서도 태음 소음 궤음이라 하여 밖에서 안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자연법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다. 이것은 상한론에서만 나타나는 고법으로 후세명과도 다르고 현대의약학과 다른 변증법으로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아홉번째, 정주이학(程朱理學)은 이기이원론(理氣二元說)적 관점이다. 이조시대의 한국철학은 기호학과(畿湖學派)와 영남학과(嶺南學派)로 갈라져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다. 약학 연구자들의 관점으로는 인간은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기 위한 학문을 연구하고 있다. 결코 인간이 자연의 타생명보다 우월하지 못한 것은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강한 생명들을 부러워하면서 연구에 임하기 때문이다. 또한 인간이 죽어서 결국은 무기원소로 돌아간다고 본다. 이 또한 기호학파가 주장하는 이기일원론(理氣一元論)이 아닐 수가 없다. 물리학자들은 인간의 정서를 생각하면 인간을 기계적으로 소립자로 구성되었다고 말하기가 주저된다고 하였다. 즉 인간은 사고하는 동물이어서 형이상학적 존재라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상한론에서는 인간의 자발적 에너지 관리를 태양의 자발적 에너지 관리에 비유하였기 때문에 논리적 근거를 태양의 역학적 현상을 모델로 하였음이 드러난다. 물질과 힘은 하나에서 출발하는 기호학파의 일원론인 기(氣)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¹⁰⁾ 즉 정신세계는 육체가 존재하는데서 비로소 존재의 과학이 성립된다고 본다.

열 번째, 이상의 삼대원전의 분석을 통하여 우리들은 상

한(非太陽), 기, 한열, 표리, 허실, 음양(육경) 일원론적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동양생명과학이론은 역경과 도덕경에서 출발하였으므로 일원론적 관점의 역도경을 합한 일곱가지를 지정하여 동양의약학의 과학철학과 과학이론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과학철학자 칼 포퍼에 의하면, 과학이란 누구에 의해서도 반증될 수 없는 확고한 과학철학을 바탕으로 정립된 과학이론에 의하여 논리정연하게 체계화된 지식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 되어 있다.¹⁰²⁾

참고문헌

- Otsuka Keisetsu 『SHANG HAN LUN (THE GREAT CLASSIC OF CHINESE MEDICINE)』 Published, Translated, and Edited by Hong-yen Hsu, William G. Peacher, M.D. Oriental Healing Arts of United States, Los Angeles, p. i-xxxvii (1981).
- 朴鍾甲 譯/ 大塚敬節 『傷寒論解説』 書院堂 p. 3-58 (1984).
- 박헌재 저 『상한론개론(육경증치개론)』 약업신문사 출판국 p. 7-10 (1984).
- 최명숙, 임동술, 이숙연 「상한론의 서지학적 연구 (I)」 Sahmyook University Journal Vol. 39, p. 339-357 (2004).
- 최명숙 『東洋醫學의 統合理論에 관한 연구』 新 傷寒論에 대하여-, 삼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64 (2005).
- 최명숙, 임동술, 이숙연 『상한론의 서지학적 연구 (II) 기(氣)와 힉스(higgs)의 비교연구』 Sahmyook University Journal Vol. 40. p. 319-342 (2006).
- 최명숙, 임동술, 이숙연 『한의약학의 서지학적연구 (I)』 - 상한론 중심으로- Yakhakhoeji Vol. 50, No. 4. p. 234-243 (2006).
- 최명숙, 임동술, 이숙연 『한의약학의 서지학적 연구 (II)-[新傷寒論]』 -老莊思想에 의한 한의약학의 과학적 통합이론-약학회지 Vol. 51. No. 1. p. 13-34 (2007).
- Myungsook Choi, Dongsool Yim, and Sookyeon Lee 『Comparative analysis on the great three books of oriental medicines』 Department of Pharmacy, Graduate school of Sahmyook University, Traditional Medicines Research Institute, Seoul 139-742, Korea, The 4th KOREA, JAPAN-CHINA Joint Symposium, Poster Presentation, PB-76, p. 228, 2008.6.
- 최명숙 『東西醫學의 統攝論』 -기에 근거한 태양론과 분자세포생물론의 비교연구-, 삼육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 56, 193. (2008)
- 紫軒洪元植 編著 『中國 醫學史』 東洋醫學研究院, p. 98-102, 141, 157, 160, 306, 316-326 (1984).
-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INTERNATIONAL STANDARD TERMINOLOGIES ON TRADITIONAL MEDICINE THE WESTERN PACIFIC REGION』, p. 9-018, 39-46, 79-80, 106-12 (2007).
- 洪元植 譯: 黃帝內經素問 解釋, 高文社 p. 34, 71, 166 (1980).
- 김창민의 4인 공저 『黃帝內經 講義』 도서출판 정담, p. 5-14 (1999).
- 김동영 저 『황제내경소문연구』 서원당 p. 208, (2000)
- 趙洙翼 역해 『新譯 통감(通鑑)』 弘新文化史 p. 83 (1993).
- 周大璞 지음, 정명수, 장동우 옮김, 『훈고학의 이해』 동양학공구총서 I, 도서출판동과서 p. 19, 321, 442, 459, 479, 467 (1997).
- 이원순 외 5인 『역사부도』 1992. 한국2중 교과서협회, (주)교학사 p. 47-91
- 金斗鍾 『韓國醫學史』 探求堂 p. 45-49, 75-85, 170, 347, 464, 553 (1981).
- 柳坪秀 해역 『列子』 자유문고 p. 98, 14-17 (1995).
- 노태준(盧台俊)역해 『新譯 周易』 흥신문화사 p. 387-414 (1986).
- 김희영 지음 『이야기중국사 (1) 고대로부터 전한까지』 청아출판사 p. 14 (2004).
- 백연옥, 이기석, 이가원 감수 신역 『書經』 흥신문화사 p. 37-61 (1986).
- 『동아원색세계대백과사전(DONG-A'S ENCYCLOPEDIA)』 동아출판사 24권 p. 530-532, 28권 p. 59-65, 30권 p. 472 (1983).
- 중국사회과학원 왕웨이(王巍) 「우하량홍산문화유적의 발굴」 한국인의 고향인 신비의 왕국을 찾았다. (14)한국인터넷 과학소식지- 2008년 1월 31일.
- 송정화 「홍산문화의 신화. 종교적의미」 한국도교문화학회 발표 (2004. 11. 20).
- 전인초, 정재서, 김선자, 이인택 공저, 『중국신화의 이해』 아카넷, p. 30, 249 (2002).
- 정재서(鄭在書) 『산해경(山海經)』 민음사 p. 14-17 (1985).
- 이윤기 옮김/ 토마스벌핀치 지음 『그리스와 로마의 신화집』 대원사 p. 27(1989).
- 중앙일보. 예술의 전당 『다윗도시와 성서의 세계圖錄』 p. 12, 29 (1998).
- 김정화 『이집트 문명대탐험』 도록, ICRD p. 48 (1998).
- 박광순 옮김 『헤로도투스』 범우사 상 p. 336-338, 하 p. 436 (1998).
- 중앙일보. 예술의 전당, 『간다라미술圖錄 The Exhibition of Gandhara Art of Pakistan』 p. 20, 23 (1999).
- Maurice Griffé 『ASIA MINOR AND MESOPOTAMIA』 FRANCE (2002).
- Julian Reade 『Mesopotamia』, British Museum p. 60, 64 (2000).
- 『The Louvre Collection』 musees nationaux, p. 54, 55 (1999).
- Andrew Robinson 『The story of writing』 Thames & Hudson Ltd, London. p. 94, 146 (2003).
- 신동욱 역/D. E. Duncan저 『The history of calenda』 CNC MEDIA, p. 42, 46, 49 (1999).
- 김정환 옮김/ Graham Hancock & Santha Faiia 『HEAVEN'S MIRROR』 김영사, 서울, p. 38, 361 (2000)
- MICHAEL WOOD/강주현 옮김 『인류최초의 문명들』 BBC, 중앙 M&B, 김영사, 서울, p. 38, 361 (2000)
- J. G. Macqueen 『The HITTITES』 Thames & Hudson, p. 141 (1996).

42. Susan Whitfield 『AUREL STEIN ON THE SILK ROAD』 The Trustees of the British Museum p. 102 (2004).
43. John Curtis 『Mesopotamia and Iran in the Parthian and Sasanian Periods』 Rejection and Revival c. BC238-AD642. The Trustees of the British Museum p. 12-13 (2000).
44. 쓰끼호라유즈루 著, 동양사상연구회 篇譯, 『管子』 知文社 p. 27 (1990).
45. 강영계 옮김/ C. Friedlein 지음 『서양철학사』 서광사 p. 76, 342, 384 (1985).
46. 李成珪 譯/司馬遷 著 『史記』 Vol. 1. 대학교전총서, 서울대학교 p. 38, 498, 514 (1987).
47. 장기근, 이석호 공역 『老子/莊子』 삼성출판사 p. 31, 126, 131, 413 (1992).
48. 金恒培 「老莊思想에 있어서의 道의 辨證論理와 認識論理의 統一」, 철학연구 p. 19, 181 (1984).
49. 李相玉 譯著 명문동양고전 『禮記 上』 명문당 p. 1-13 (1991).
50. 表文台의 新譯正本 四書五經 『論語』 민예사 358-382 (1987).
51. 金學主 新역 『論語』 대학교전총서⑤ 서울대학교 p. 9-12 (1999).
52. 李民樹 譯解 『新譯 諸子百家』 흥신문화사 p. 10, 274 (1991).
53. 許成道 『晏子春秋成書時期考』 中國學報 p. 1-20, 95-114 (1979).
54. 韓容우 『新譯, 孟子』 弘新文化社 p. 399-400 (1986).
55. 李寅浩 『司馬遷의 黃老思想』 p. 5, (1996).
56. 朴志焄 『鄭日童 著, 漢初의 政治와 黃老思想, 書評論考』 p. 282, 287 (1998). 21. 4. 이기석,
57. 김영식, 김제란 옮김/조셉 니덤 지, 콜린 로넌 축약 『중국의 과학과 문명』 축약본 1. 사상적 배경, 까치출판사 p. 117-142, 157, 349 (1998).
58. 崔大林 新譯 『순자荀子』 흥신문화사 p. 66 비십이자편 (1993).
59. 成동호 역 『韓非子』 흥신문화사 p. 17 128 (1993).
60. 이운구 지음 『동아시아의 비판사상의 뿌리』 도서출판 길 p. 98 (2005).
61. 권오석 역 『新譯 默子』 흥신문화사 , p. 25-60 (1991)
62. 임채우(林采佑) 『왕필(王弼)의 노자(老子)』 예문서원 p. 294-303 (1997).
63. 吳二煥 譯/ 狩野直喜 著 『中國 哲學史』 을유문화사 p. 18, 29 (1991).
64. 도광순(都光淳) 『신선사상과 도교』, 범우사 p. 17-18 (1994).
65. 劉明鍾 지 『性理學과 陽明學』 연세대학교출판부 p. 8, 10, 24, 55, 115, 217-221 (1994).
66. 이기석 한용우역, 李家源監修 『大學·中庸』 흥신문화사 p. 11-20 (1987).
67. 김신근, 「동양 의학학의 발자취」, 약업신문 기고문, 1992년 8월.
68. 김신근, 「동양의약학의 발자취, 전국위생회 개최 1950년 8월의 「중서의학 합작문제 제1회」 약업신문 (1992년 8월).
69. 약학대학 한약학 교재연구회편, 김창민 외 공저 『韓藥方劑學』 도서출판 정담, p. 71-72, 167-172 (1994).
70. 이상룡 『동양의학과 서양의학』 월간생명보험 생활한방 11월호 p. 71-81 (2002).
71. 제4회 주역학(周易學) 학술대회 「주역(周易)과 수리 물리학」 사단법인 동방문화진흥회 부설, 홍역사상연구소, 8월 3일 오후 2:30~6:00 (2002).
72. 허주 역, 아커크네히트의 『세계 醫學史』 지식산업사 p. 28-99 (1987).
73. 오정혜 편저 충남대학교유학연구소 『畿湖學派의 철학사상』 p. 1-30 (1995).
74. 김창민, 류순섭 공저 『이제마의 사상체질의학』, 아카데미 p. 206 (2002).
75. 한국 생약 교수협의회 편저 『本草學』 대한약사회, p. 29 (1994).
76. 陳存仁 著, 圖說 『漢方醫藥大辭典/中國藥學大典』, 圖書出版 松嶽 1권 p. 124 (1988).
77. 朴盛洙, 廉泰煥 共著 『現代漢方講座』 大韓漢方醫學, 행림사 p. 23-99 (1963).
78. 許浚 지, 남산당 국역 『동의보감』 p. 544-599 (1613발행) (1975국역).
80. 漢方醫藥學 附. 『傷寒論/ 金匱要略』, 東南出版社 p. 54 (1985).
81. 대한약사한약연구회편, 문종영 편집 『傷寒論』 과 『金匱要略』 서대구인쇄사 (1986).
82. 高仲璿 編著 『漢方便鑑』 前篇, 대구시약사회 p. 1-3 (1976).
83. 廉龍河, 河基泰, 玄東煥, 尹相柱, 金俊錡, 崔達永 『『金匱要略』 과 『傷寒論』 의 相似條文에 대한 分析』, 東國韓醫學研究所論文集 第9卷 D.J.I.O.M. Vol. 9. p. 155-163 (2000).
84. 崔培培 「傷寒論 概括에 관한 小考」 학술대회 발표논문,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p. 100-112 (2002).
85. 許程 譯/Pierre Huard, Ming Wong 共著 『東洋醫學史 (CHINESE MEDICINE)』, 대한교과서주식회사 p. 3, 5, 7, 9, 14 (1986).
86. 湯本求真 著, 朱甲得 譯 『皇漢醫學』 第壹卷, 癸丑文化社, p. 11-20 (1974).
87. 龍野一雄 編著, 廉泰煥 譯 『仲景方類聚』 癸丑文化社 p. 1-6 (1974).
88. 김창민의 傷寒論研究會 共譯/李培生, 劉渡舟, 공저 『傷寒論講義』, 高等醫藥院教材, 上海科學技術出版社, 圖書出版 鼎談 p. 1-4, 67 (1997).
89. 大韓藥師漢藥研究會편, 李承吉유고집 『以導傷寒論講座』 동신출판사 p. 3-13, 32-34 (2000).
90. 李培生, 劉渡舟 編輯, 『傷寒論講義』, 供中醫專業用, 高等醫藥院教材,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7)
91. 대한약사한약연구회편 『以導 李承吉 先生 古稀記念治驗論集』 메디칼인텍스 p. 22-38 (1992). 89.
92. 田炳燾, 禹元洪, 鄭遇悅 『傷寒論六經概念에 對하여』 동의 병리학회지 Vol. 5. p. 131-138 (1990).
93. 清, 俞根初 著 『通俗傷寒論』 旋風出版社, 台北 p. 1 (1965).
94. 清, 柯琴 編纂 『傷寒來蘇集』 旋風出版社, 台北 p. 1-8 (1962).
95. 이운구 지음 『인도문화의 이해』 세광출판사, p. 327 (1995).
96. 이기명, 1999년 노벨물리학상 『21세기물리학의 방향, 양자론적 접근, 앙스밀스의 이론과 힉스방식』 물리학과 첨

단기술- 9(1), (2)(2000).

97. 김재관 특집99노벨물리학상 「게이지이론(gauge bosons)의 발전」 물리학과 첨단기술, 8(12),(1999).

98. 漢, 張仲景 著, 『傷寒論』 과 『金櫃要略方論』 傳流廣籍 景印本珍 台聯國風出版社印行 台北 상한론 p. 1-10, 금궤 p. 3 (1957)

99. 최명숙. 기획연재 『과립제 중심 임상한약』 약사공론 (kpanews.co.kr) 매주 목요일 학술 난 21면, 3433호~제 3795 중 147회, 2002년 4월~2005년 11월까지.

100. Mervyn G Hardinge, 『A Physician Explains Ellen White Counsel on DRUGS, HERBS, AND NATURAL REMEDIES』 Review and Herald, p. 28-40 (2001).

101. 손병욱 역/최한기(崔漢綺)저 『기학(氣學)』 통나무, p. 42, 52, 101 (2004).

102. Karl R. Popper/이한구 옮김 『추측과 논박』 민음사, p. 108, 399, 492 (2001)

(2008년 12월 15일 접수)